

南朝時期 불교문화와 불교류 志怪小說*

- 『幽明錄』, 『宣驗記』를 중심으로 -

이 인 경**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南朝 劉宋시기 대표적인 불교류 志怪小說인 劉義慶의 『幽明錄』과 『宣驗記』의 내용 분석을 통해 당시 불교문화를 이해해보았다.

불교는 東晉 이후 번성하면서 부처나 보살, 지옥, 因果應報에 따른 輪廻 등 불교와 관련된 주제가 소설 창작에 영향을 주면서 제재와 내용에 큰 영향을 끼쳤다. 불교류 지괴소설이 남조시대 지괴소설의 중심이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회풍조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먼저 남조시대 대표적인 지괴소설 작가 유 의경과 불교문화가 번성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 불교류 지괴소설의 주제와 관련된 불교의 주요사상을 살펴 보았다. 南朝時期 불교문화는 당시 시대적 상황과 불교문화를 고려하여 現世救濟 중심의 觀世音 신앙, 因果應報과 輪廻轉生, 死後世界 관념을 중심으로 불교의 주요사상과 인생관을 살펴보았다. 『유명록』, 『선험기』의 내용을 불교 주요사상과 연계하여 靈驗한 이야기, 因果應報 이야기, 冥界와 還生の 이야기로 구분하여 내용을 분석하고, 작품에 반영된 불교사상과 문화를 이해해보았다.

[주제어] 불교문화, 불교류 지괴소설, 觀世音 신앙, 因果應報, 地獄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글 | III. 『幽明錄』, 『宣驗記』의 내용 분석 |
| II. 南朝시대 사회풍조와 불교문화 | IV. 나오는 글 |

I. 들어가는 글

南朝時期 志怪小說은 魏晉시기에 비해 작품의 수가 많을 뿐 아니라 우수한 작품도 많이 편찬되었다. 특히

* 이 연구는 단국대학교 2017년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 단국대학교 강의전담조교수 / renjing999@naver.com

이 시기 志怪小說의 특징은 現世救濟 중심의 觀世音 신앙, 因果應報와 輪廻轉生, 冥界와 還生 등 불교사상과 관계된 작품이 많이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東晉 이후 대규모로 진행된 불경번역 사업은 불교의 포교 범위 확대에 이어졌고, 이런 당시의 사회풍조는 남조시기 불교문화 융성에 바탕이 되어, 文人들의 지괴소설 창작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남조시대 번성했던 불교문화가 당시 불교류 지괴소설에 끼친 영향을 살펴 그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불교는 東漢시기에 전래된 이래 巫教, 道教, 儒教 같은 중국 고유의 신앙이나 정통 사상과의 갈등과 조화를 통해 성장 발전하였다. 초기 지괴소설은 神話傳說, 神仙思想과 道教思想에 의거해 형성되고 발전되었는데, 이것은 동한시대 이후 거듭된 전란과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儒家 중심의 봉건사회가 크게 흔들리면서 사상적 공백을 맞이한 것과 관련이 있다. 또 이 시기에 만연했던 淸淡과 玄學의 풍조는 도교와 불교의 발전과 전파에도 영향을 끼쳤다. 불교보다 앞서 번성한 도교는 老莊思想을 기반으로 한 토착종교로서 동란 시절 어려운 생활을 연명해야했던 사람들의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해주었다. 반면 불교는 외래 종교인 까닭에 동한시대에 전래되기는 하였지만 교리 전달이 어려워 포교가 쉽지 않았을 뿐 아니라 토착종교와의 갈등으로 인해 단시일 내에 독립적인 종교로 발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진 이후 불경번역이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포교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고 토착종교와의 갈등에서도 우월한 입장을 점유하게 되었다. 남조시기 불교는 드디어 독자적인 종교로서의 입지를 구축하였을 뿐 아니라 그 세력을 확대해, 사상 및 문화 등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끼쳤다. 이 시기에 창작된 많은 지괴소설 역시 바로 이와 같은 사회풍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불교문화의 변성과 불교류 지괴소설의 창작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소설 변천 과정을 살펴보다라도 지괴소설은 劉宋시기를 분기점으로 동진시대까지는 도교와 신선사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고, 유송 이후부터는 불교의 靈驗이나 因果應報 사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것이 많다고 하였으니,¹⁾ 이 시기 지괴소설의 변성에 중국 불교문화가 끼친 영향은 막중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유송시기 대표적인 불교류 지괴소설인 劉義慶의 『幽明錄』과 『宣驗記』의 내용 분석을 통해 당시 불교문화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작자 유의경은 魏晉南北朝 지괴소설의 대표적인 작가 東晉 干寶와 병칭되는 인물이고, 그의 작품 『유명록』은 남조시기를 대표하는 『搜神記』 유형의 지괴소설이다. 『선험기』 또한 齊 王琰의 『冥祥記』와 함께 이 시기를 대표하는 불교 신앙 중심의 지괴소설이라 할 수 있다.²⁾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유의경의 두 작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³⁾ 『유명록』은 『수신기』와 마찬가지로 신화전설을 비롯한 무

1) 변귀남, 「漢譯經典과 佛敎類志怪小說의 영향관계 小考」, 『中國語文學』 41, 2003. 260쪽.

2) 李劍國, 『唐前志怪小說史』,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1. 586쪽. 작자는 『宣驗記』와 『冥祥記』는 남조시대 가장 중요한 '釋氏 輔敎書'인데, 그 중 『선험기』는 남조시대 因果와 應驗이라는 불교적 관념을 전문적으로 선양한 첫 번째 지괴소설이라 했다.

3) 본고에서 『幽明錄』과 『宣驗記』를 중심으로 남조시기 불교문화를 이해해보고자 한 것은 작자 유의경이 남조시기를 대표하는 지괴소설이자 불교신봉자이기 때문이다. 문학작품은 당시의 사회상황과 작자의 생각과 생활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까닭에 불교를 선양했던 작자의 사상은 작품으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幽明錄』과 『宣驗記』는 서로 다른 유형의 지괴소설에 속하지만, 작자 유의경의 영향으로 모두 불교적 성향이 농후한 작품들이다. 특히 본문에서 다루게 될 불교류 이야기들은 남조시기의 불교문화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幽明錄』의 불교류 이야기들은 대부분 편폭이 긴 이야기로 서술되어 특히 문학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것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宣驗記』는 전문적인 불교선양의 지괴소설이기 때문에 본고에서 정리한 불교문화를 중심으로 작품을 구분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幽明錄』과 『宣驗記』는 한 작가의 작품이지만 본고에서는 당시의 불교문화를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정리해 이로부터 작품을 분석하고자 하였고 때문

교와 도교를 포함한 다양한 종교사상을 내용에 반영하고 있지만 『수신기』보다는 冥界 여행이나 地獄 등의 불교적 주제가 큰 편폭으로 서술되어 있다. 『명상기』는 앞 선 시대의 『유명록』과 전문적인 불교 선양서 『선협기』의 내용을 보다 큰 편폭으로 창작하여 지괴소설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기에 남조시대 불교류 지괴소설 중 문학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유송시기 『유명록』과 『선협기』는 지괴소설 발전에 있어 동진의 『수신기』와 齊의 『명상기』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들 작품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위진남북조 시대는 역사상 유례없는 혼란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설은 이 시기 문학의 한 형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첫 번째 중국소설의 번성이라 할 수 있는 위진남북조 시기 지괴소설 발전의 이유를 苗壯은 다양한 계층의 소설작가의 출현과 풍부하고 다채로운 소설의 내용 때문이라고 하였다.⁴⁾ 曹丕, 유의경 같은 제왕이나 귀족에서부터 간보, 陶淵明 등의 文人, 그리고 葛洪, 왕염 같은 도교와 불교도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소설을 창작하였기 때문이다. 다양한 계층의 작가들에 의해 소설이 창작된 만큼 소설의 내용 또한 당시 사회풍조를 반영한 다양한 사상과 제재가 활용되었다. 구전되어 온 이야기나 이전 시대 전적을 수집해 선별되어 서술되었을 뿐 아니라, 시대적인 견문이나 민간전설도 가치여부에 따라 선별해 서술하였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모든 제재가 지괴소설의 내용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진남북조 시기에 크게 유행한 신선사상을 비롯한 도교와 불교도 지괴소설의 내용을 한층 풍부하게 해주었다. 특히 불교는 동진 이후 번성하면서 부처나 보살, 지옥, 인과응보에 따른 윤회 등 불교와 관련된 주제가 소설 창작에 영향을 주면서 제재와 내용은 풍부해졌다. 불교류 지괴소설이 남조시기 지괴소설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사회풍조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먼저 이 시기를 대표하는 지괴소설 작가 유의경과 불교문화가 번성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 불교류 지괴소설의 주제와 관련된 불교의 주요사상을 살펴 『유명록』, 『선협기』 내용 분석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다음으로 靈驗한 이야기, 인과응보 이야기, 명계와 환생 이야기로 구분하여 내용을 분석하고, 작품에 반영된 불교사상과 문화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II. 南朝時期 사회풍조와 불교문화

1. 불교문화 번성과 불교류 지괴소설의 유행

이야기를 빌어 교리를 전달하는 것은 불교 전파의 한 방법이다. 東漢 시기 중국에 전래된 불교도 이런 전통을 이어나가 불교 번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南北朝 시기 불교의 위세가 확대되면서 釋迦牟尼 사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게 되면서, 불교도와 불교를 신봉했던 문인들 중에는 불교 전파의 전통적인 방

에, 남조시기 불교신봉자였던 유의경의 두 작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4) 苗壯, 『筆記小說史』, 浙江, 浙江古籍出版社, 1998, 56-57쪽 참조.

식대로 소설을 빌어 불법을 전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다. 魯迅은 이것을 ‘釋氏輔教之書’라 칭해 설명하였다. 불교 포교를 위한 책이라는 의미의 석씨보교지서란 대체적으로 불경이나 불상과 관련된 異蹟을 기술해 영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의 신앙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을 말한다.⁵⁾ 다시 말해 불교 포교를 위해 교리를 직접 전달하는 대신 신비롭고 기이한 행적을 이야기로 서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동한시기 전래된 불교가 西晉과 동진을 거쳐 남북조시기에 이르러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과 관계가 있다. 때문에 다음에서는 동한 이후의 시대적 상황과 불교문화를 먼저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당시의 사회풍조와 연계하여 작가 劉義慶의 생애를 살펴 불교류 지괴소설 『유명록』과 『선험기』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1) 시대상황과 불교문화

西晉의 八王의 亂 이후 匈奴에 의해 洛陽과 長安이 차례로 함락되자 司馬氏 정권은 長江 이남에서 기존의 강남 호족들과 東晉을 건국하였다. 長江을 기준으로 五胡간의 패권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북쪽과 한족 정권 동진이 건립된 남쪽으로 구분된 이 시기를 南北朝시대라 한다. 북방에서 침입하는 위기상황을 제외한다면 동진 시기는 서로의 입장에서 권력쟁탈을 표면화하였기 때문에 왕실의 권위란 유명무실한 것이었다. 군벌 桓玄이 중신들을 제거하고 황제를 자처한 후 다시 그의 부하 劉裕가 환현의 군대를 몰아내고 실권을 잡아 宋을 건국하였다.

정치보복과 동란의 악순환이 반복되다보니 儒家 중심의 봉건예교와 충효의 논리는 사회에 더 이상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다. 신분계층이 자신보다 낮은 이가 황제로 등극하는 세상에서는 儒家의 정통성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정치적 상황에서 無爲自由를 추구하는 老莊사상과 解脫과 涅槃을 추구하는 불교 사상은 귀족과 문인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었다. 특히 東漢시기 전래된 불교는 서진 이후 성장세를 보이다가 동진 이후 왕실과 귀족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게 되면서 크게 전파되었다. 동진 건국 후 백성들의 착취당하는 삶은 여전하였으나 강남의 문벌 귀족들의 생활은 오히려 견재하여 학술과 문화적 발전을 이루었다. 이 시기 학술문화의 대표가 老莊에서 변모한 玄學과 불교문화이다. 당시에 많은 명사들이 승려들과 교류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었다. 때문에 고승들은 불교사상을 당시에 유행하던 道教나 노장사상으로 풀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을 格義佛敎라고 한다. 또 이 시기에는 대규모로 불경 번역이 진행되어 불교 전파에 큰 영향을 끼쳤다. 불경 번역 사업은 경제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왕실이나 문벌귀족의 불교에 대한 옹호를 나타낸다. 지배층 뿐 아니라 하층민들도 당시의 사회현실에 대한 불만과 염증으로 불교를 옹호하였다. 安世高, 支婁迦讖에 의해 번역된 최초 漢譯 불경이 처음에는 소수의 왕공이나 귀족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이 시기 이후로 대량으로 번역된 불경은 격의불교로 재해석되면서 문인귀족사회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이런 사회풍조는 문인들의 불교류 지괴소설 창작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5) 魯迅, 『中國小說史略』, 南京, 江蘇文藝出版社, 2007, 36쪽. “釋氏輔教之書……大抵記經像之顯效, 明應驗之實有, 以震聳世俗, 使生敬信之心.”

南朝는 유유의 송 건국 이후 왕조 건립자가 기틀을 닦아놓으면 몇 대가 지나지 않아 권신들 간의 권력 다툼에 의해 또 다른 왕조가 들어서는 과정이 되풀이되었다. 송 이후 건립된 齊, 梁, 陳도 모두 이전 왕조의 장군이나 권신에 의해 정권이 교체되었다. 계급이 낮은 이의 반란이 계속되던 시절 고귀한 가문과 높은 지위의 인물들은 우대의 대상이긴 하였지만 정치적 실권은 가질 수가 없었다. 좋은 가문 출신에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정도로 명망조차 높은 인물이라면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는 제거의 첫 번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문학이나 예술에 집중하며 문학 집단을 형성한 이들 중 태자나 왕족 출신이 많은 것은 남조시기의 바로 이런 사회적 상황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인사대부들 역시 현실 정치로는 그들의 이상을 실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깊은 산이나 寺院 등을 다니며 승려와 교류하였다. 문인사대부들은 고승들을 통해 불경을 비롯한 불교를 학습하고, 문장으로 교류하며 문인사대부 불교를 형성하였다. 다시 말해 불교는 동진과 유송 시기에 이르러 문인 사대부계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상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그들의 작품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불교는 齊·梁 왕조를 거치며 더욱 번성하여 왕, 귀족과 백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전파되었다.⁶⁾

(2) 漢譯 불교경전과 불교류 지괴소설

불교문화의 번성은 대규모로 진행된 불경의 번역사업과 관계가 있다. 외래 종교 불교가 처음 중국에 유입된 것은 인도 북방에 위치한 大月氏, 安息, 康居 등 중국의 서역지방 사람들이 경전을 전래하면서 부터라고 한다.⁷⁾ 그러니까 인도 불교 경전은 서역에 전해져 서역어로 번역되어 서역불교가 되고, 이것이 다시 중국에 전해져 이를 통해 중국불교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불경은 중국의 최초 불교 유입시기를 추정할 때에도 그 증거로 활용된다. 慧皎 『高僧傳』에서 東漢 明帝는 攝摩騰과 竺法蘭에게 『四十二章經』에 대한 번역을 요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불교의 최초 유입시기를 추정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⁸⁾ 하지만 통상적으로 불경의 최초 번역은 安世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알려져 있으며, 안세고와 같은 불경 번역자들의 신비로운 이야기는 지괴소설의 소재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동한 말 儒家의 지배체제가 무너지면서 巫教, 儒教, 道教와 佛教 등의 사상은 魏晉 이래 지괴소설에 혼합되어 나타났다. 이 또한 동한 말 안세고 등에 의해 진행된 불교경전의 번역과 관계가 있다. 불경 번역의 초기 시절에는 梵語 용어에 대한 이해와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경전내용의 보다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 중국 고유의 사상, 즉 원시신앙이나 儒·道家의 사상을 빌어 번역하는 格義佛教 방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동진 이후 梵僧과 인도 불경이 인도로부터 직접 도래하고 유입되면서부터 격의불교에 의한 경전 번역 대신 원전에 충실한 번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⁹⁾ 北朝 後秦의 鳩摩羅什 이후로 漢譯 불교경전은 인도불경 원전에 충실한 중국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풀이되기 시작하였다고

6) 본고에서는 남조시대의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조시대를 중심으로 불교문화 전파과정만을 본문에 정리했다.

7) 張元圭, 『中國佛教史』, 서울, 고려원, 1983, 14쪽.

8) 卞貴南, 앞의 논문, 260~261쪽 참조.

9) 張元圭, 앞의 책, 14쪽. 동진 이후로 인도불교가 직접 중국에 전래되기 시작하였고 梵僧도 인도에서 직접 중국으로 도래하였다고 하니, 인도 불경의 직접 유입도 이 시기부터 활발해졌을 것이다.

볼 수 있다.¹⁰⁾ 초기 漢譯 불교경전이 소수의 왕공과 귀족들만 볼 수 있는 것이었다면 동진 이래 대량으로 번역된 한역 불교경전은 귀족 문인 계층이 불교를 신앙하게 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니까 불교류 지괴소설은 불교경전을 통해 불교를 신봉하게 된 문인이나 불교도에 의해 창작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한역 불교경전은 지괴소설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3) 불교 신봉자 劉義慶

宋의 宗室인 劉義慶은 晉 安帝 元興 2년(403) 長沙王 劉道憐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13세에 유의경은 南郡 公이라는 작위를 습봉 받았고, 17세에는 숙부 劉道規의 뒤를 이어 臨川王에 임명되었다. 임천왕에 임명된 420년은 백부 劉裕가 宋을 건국한 해로 유의경은 이후 尙書左僕射, 丹陽尹, 荊州와 江州刺史 등을 역임하였다. 『宋書·宗室傳』과 『南史·宋宗室及諸王傳上』에 실려 있는 그의 사적에 따르면 유의경은 문학을 애호해 많은 문인들을 초빙해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 여러 저작들을 편찬하였다고 한다.¹¹⁾ 그는 晩年에 불교를 신봉하였기에 이에 대해 『宋書』에서는 “만년에 승려를 봉양하며, 많은 재물을 충당하게 되었다.”고 하였다.¹²⁾ 유의경의 불교 신봉은 劉宋시기 제왕들의 불교문화와도 관계가 있다.

송의 여러 왕들은 모두 文才를 지니고 불경을 열심히 익히면서 매달 六齋를 올리고 八戒를 지켰으며 문장 짓는 일을 돈독히 여기며 좋아했다. 그 중에서 유의경이 가장 뛰어났다.……집안의 분자들에게는 모두 계율을 닦도록 했고, 장병들에게는 모두 불경을 송독케 했다.¹³⁾

이것은 당의 승려 法琳이 『辯正論』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위 내용에 따르면 불교에서 중시하는 행동준칙들을 이행하였던 유송 시기 제왕들 중에서도 유의경은 가장 독실한 불교 신봉자이며 문학에 대한 관심도 가장 뛰어났던 인물이었다. 유의경이 불교에 이처럼 심취하게 된 까닭은 그의 생애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임천왕으로 임명되기 전 유의경은 13세에 송을 건국한 劉裕를 따라 後秦 정벌에 참여하였고, 이 시간을 통해 그는 이미 전쟁과 왕조 교체의 참상을 경험하였다. 宋 武帝 유유가 죽자 傅亮, 謝晦, 徐羨之 등은 유유의 태자 少帝 劉義符를 폐위시켜 죽이고, 文帝 劉義隆을 옹립해 정권의 주축이 되었다. 하지만 세력이 비대해진 이들을 문제는 元嘉3년에 주살한다. 유의경은 원기9년 지방관을 자처해 조정을 떠날 때까지 권력투쟁을 위한 살벌한 상황을 직접 경험해야했기에 자신의 생명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어지러운 세상에 대해 염증을 느꼈을 것이고, 이런 상황은 불교에 대한 신봉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것이다.

종실 출신이 문학 집단을 형성하는 남조시대 사회풍조도 유의경의 작품 편찬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문객들과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 그의 작품들은 그의 나이 36세 江州刺史 재직 이후 본격적으로 편찬되었기 때

10) 張元圭, 앞의 책, 38-39쪽 참조.

11) 李劍國, 앞의 책, 483쪽 참조. 苗壯, 앞의 책 95쪽 참조.

12) 沈約 撰, 『宋書』卷五十一, 北京, 中華書局, 2015. “晩節奉養沙門, 頗致費損.”

13) CBETA電子佛典集成, http://tripitaka.cbeta.org/ko/T52n2110_003. [0504b16]. 法琳, 『辯正論』卷三, 「十代奉佛上篇」, “宋世諸王, 並懷文藻, 大習佛經, 每月六齋, 自持八戒, 篤好文雅, 義慶最優. ……閤內夫嬪, 並令修戒, 麾下將士, 咸使誦經.”

문에 남조시대 번성했던 불교문화와 작자 자신의 불교에 대한 믿음은 작품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지만 『유명록』과 『선협기』는 모두 41년이라는 유의경 생애 중 만년시절, 즉 36세 이후에 편찬된 것이므로,¹⁴⁾ 이들 작품에는 불교를 신봉했던 작자의 사상이 자연스레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불교의 주요 사상과 인생관

불교류 지괴소설의 이야기는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來世救濟 중심의 淨土사상, 因果應報와 輪廻轉生, 死後세계를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고에서도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여 주제를 구분하되, 南朝時期의 시대적 상황과 불교문화를 고려하여 내세구제 중심의 정토사상 대신 現世救濟 중심의 觀世音 신앙, 인과응보와 윤회전생, 사후세계 관념을 중심으로 불교의 주요사상과 인생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1) 現世救濟 중심의 觀世音 신앙

東晉에 이어 왕조가 宋齊梁陳으로 교체되었던 동진 시절, 사람들은 생명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불안정한 현실에서 死後의 안락을 기원하기보다 現世의 고난으로부터 구제받기를 염원하였다. 이로 인해 來世救濟 중심의 淨土신앙 보다 現世救濟 중심의 觀世音 신앙이 먼저 광범위하게 전파되었다. 불교에서 신앙하는 관세음은 30여 가지 모습으로 변신하여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구제해주는 존재라고 한다.¹⁵⁾ 관세음은 곧 부처와 사람 사이를 중개하는 존재로, 부처의 大慈大悲한 敎法을 시행하기에 사람들에게 널리 숭배되었다.

劉宋시기 관세음 신앙은 귀족계층부터 일반백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전파되었다. 현재 일본에 전해지고 있는 『觀世音應驗記』 3種은 동진에서 陳에 이르는 기간 동안 관세음 신앙이 얼마나 유행하였는지를 대변해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¹⁶⁾ 『관세음응험기』 3종은 최초로 동진 謝博가 『光世音應驗記』를 지었고, 이후 宋의 傅亮과 張演이 『續光世音應驗記』로 편찬하였다가 다시 齊의 陸杲에 의해 『繫觀世音應驗記』가 편찬되었다.¹⁷⁾ 동진의 사부를 비롯한 『관세음응험기』 3종의 편찬자가 귀족 출신으로 높은 벼슬에 올랐던 사람임을 감안한다면 남조시기 귀족사회에서 관세음 신앙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작품의 내용이 『法華經』 중 관세음 신앙을 선양한 것이 많다고 한 점만 보더라도 당시 불교류 지괴소설에 반영된 관세음 신앙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14) 劉義慶 撰, 張貞海 譯註, 『幽明錄』, 서울, 살림출판사, 2000, 15~16쪽 참조. 역자는 원서의 설명 부분에서 몇 가지 단서로 『유명록』의 편찬연도를 추정해 보면 유의경이 문사들과 공동으로 작품을 편찬했던 강주자사 재직 이후 시기인 36세(월가 16년) 이후, 혹은 『古小說鈎沈』의 劉斌이야기가 원가 17년에 일어난 일임을 고려해 편찬의 완성시기를 최소한 작자의 37세(월가 17년) 이후로 추정해 볼 수 있다고 했다.

15) 孫昌武, 『佛敎與中國文學』, 上海, 人民出版社, 1988, 262쪽 참조.

16) 현재 원본 『관세음응험기』 3종은 일본에만 전해지고 있다. 중국 교수 孫昌武가 일본에 체재하는 동안 이 자료의 존재를 알고 校點하여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17) 孫昌武, 앞의 책, 261~262쪽 참조.

『법화경』의 「觀世音菩薩普門品」은 관세음 신앙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경전 중 하나이다. 여기에서 관세음은 온갖 災禍로 고통 받는 중생들이 관세음을 염불하면 그 소리를 듣고 나타나 모든 재화로부터 구제해준다고 하였다.¹⁸⁾ 그러니까 물, 불, 바다, 羅刹 등에 의해 고통 받는 이들이 관세음을 염불하면 재화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관세음응험기』 3종의 내용은 『법화경』의 관세음 신앙을 선양한 것이라 할 수 있으니, 이 시기 관세음 신앙과 불교류 지괴소설의 관세음의 靈驗 이야기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진 이후 대규모의 불경 번역과 많은 불교 포교자들의 노력으로 南朝시대는 불교문화가 번성하였지만, 동란으로 야기된 생명보존에 대한 위협과 불안정한 생활은 당시 사람들에게 내세보다는 현세에서의 구제를 염원하게 하였고, 이들의 염원은 관세음 신앙으로 체현되었다.¹⁹⁾ 관세음 신앙 중심의 불교의 영험함을 다룬 작품은 위진남북조 시기 지속적으로 편찬되다가, 유송 이후 불교도들의 신앙체험을 위주로 한 靈驗類의 대표적인 불교류 지괴소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2) 因果應報에 의한 輪迴轉生の 인생관

因果應報와 輪迴轉生 관념은 불교의 핵심 교리로, 南朝時期 志怪小說 작가들은 이것을 활용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창작하였다.

인과응보 관념은 불교 고유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도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면서 기존 중국의 인과응보 관념은 한층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고대 인도 사상에도 “좋은 행위에 의해 좋은 모태에 수태되고, 나쁜 행위에 의해 나쁜 모태에 수태된다.”고 하는 초보적 형태의 인과응보 관념이 있었고,²⁰⁾ 고대 중국에도 “선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고, 선하지 않은 것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남은 재앙이 있다.”와 같은 인과응보 관념이 있었다.²¹⁾ 중국의 인과응보 관념은 天命사상을 바탕으로 한 神人感應의 인과응보로 설명되기도 한다.²²⁾ 중국은 일찍이 天을 위주로 한 現世의 報應관념이 있었던 까닭에 爲政者들은 德의 有無에 따라 천하를 얻거나 잃었다. 이때 천제는 곧 정치윤리의 주재자로 천하와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또 천제는 사람들의 행위를 심판하여 그들의 행위에 따라. 선을 쌓은 집과 악을 쌓은 집에 각각 그에 따른 경사와 재앙으로 응대하였다. 그러니까 고대 중국인에게 있어 하늘, 즉 천제는 인간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할 뿐 아니라 감시하여 사람들의 행위를 심판하는 존재였던 것이다. 선악 행위에 의한 상벌로 보응되는 이와 같은 도덕 윤리에 기초한 인과응보 관념은 先秦 이래 줄곧 계승되었으나 현실사회의 善惡 행위가 반드시 그에 따른 보응으로 이어진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인감응의 선악응보는 논의점이 많

18) 賴永海 主編, 王彬 譯注, 『法華經』, 北京, 中華書局, 2015. “觀世音菩薩普門品第二十五”若有無量百千萬億衆生受諸苦惱, 聞是觀世音菩薩, 一心稱名, 觀世音菩薩即時觀其音聲皆得解脫.”

19) 혼란한 정국이 통일된 初唐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생사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었기에 생명보존을 위한 현세구제 대신 보다 나은 현실생활을 위한 구복을 소망하게 되었다. 때문에 唐朝 이후로는 현세구제 대신 내세의 정도신앙이 중심이 되었다.

20) 히라카와 아키라(지), 이호근(역), 『인도불교의 역사』(상), 서울, 민족사, 1994, 210쪽 재인용. 『찬도가·우파니샤드』

21) 黃壽祺·張善文 撰, 『周易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周易·坤卦』, “積善之家, 必有餘慶; 積不善之家, 必有餘殃.”

22) 薛惠琪 撰, 『六朝佛教志怪小說研究』, 臺北, 文津出版社, 2011, 52쪽 참조.

을 수밖에 없었다.

초기 道教 경전 『太平經』에서 설명한 ‘承負’도 중국 고유의 인과응보 관념이라 할 수 있다.²³⁾ 承負說에 따르면 조상들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람들의 길흉화복이 결정된다고 했으니, 자신의 善惡 행위가 곧 후손에게 영향을 끼쳐 응보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교의 因果說과 일맥상통하는 점이라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선악업보를 논하기에는 완전하다고 할 수 없고, 위에서 언급한 기존의 인과응보 관념처럼 사람의 來世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단지 후세에 선악 행위의 결과가 이어진다고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 전래로 유입된 輪廻관념은 보응에 대한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불교의 윤회와 보응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과 관계된 것이어서, 자손이 선조의 업보를 받드시 이어가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중국의 인과응보 관념보다는 공평하다고 할 수 있다.

因果 관념은 불교의 기본 원리 중 하나로 이것은 緣起論을 바탕으로 한다. 불교에서 緣起란 세계 형성의 근원 및 생명윤회의 원인을 설명한 것이니,²⁴⁾ 연기론이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발생은 모두 그 조건이나 원인이 있음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원시불교경전인 『阿含經』에서는 이것을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는 것이요,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는 것이다. 이번 생으로 다음 생이 있는 것이고, 이번의 죽음으로 다음 죽음이 있다.”라고 하였으니,²⁵⁾ 이때 연기론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 곧 인과응보라 할 수 있다.²⁶⁾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주체는 ‘業’이다. 이것은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사건으로 드러나므로 모든 행위에는 업이 포함된다고 한다.²⁷⁾ 그래서 몸(身業)·입(口業)·마음(意業)의 욕심으로부터 초래된 업을 三業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선악의 행위가 바로 고통의 원인이므로 이것을 業因이라 하였다. 그리고 보응의 원인이 되는 전생에 지은 선악의 업은 宿業, 현세에 지은 선악의 업은 現業이라 칭한다. 불교에서는 또 선악에 따른 인과응보, 즉 業報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업보는 현세의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 이어질 수도 있고, 사후에 자신을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거나 새 생명을 부여해줄 수도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불교적 도덕준칙과 계율에 의거해 사람의 사상과 행위를 선과 악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선악의 업으로 보응이 결정되는 것이라 설명한다. 忠孝가 儒家的 관점의 善業이라면 佛法僧 三寶에 대한 공경과 공양이 불교적 관점의 선업에 해당된다. 유가적 관점에서는 주인에 대한 불충이나 도둑질이 惡業이고, 불교적 관점에서는 불교를 비방하거나 불가의 물품 도둑질 등이 악업에 속한다. 『宣驗記』의

23) 王明, 『太平經合校(上)』, 北京, 中華書局, 1997, 「卷三十九(丙部之五)」 70쪽. “승은 앞이 되고 부는 뒤가 된다. 승이란 곧 조상이 하늘 뜻대로 살아가다가 조금씩 잘못된 것이 자신도 모르게 세월과 더불어 쌓이고 쌓여 많아져서 지금의 자손이 죄 없이 허물을 덮어쓰고 연루되어 재앙을 입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이어 전하고 뒤에서 떠맡는 것을 말한다. 부라는 것은 유전되는 재앙이 한 사람이 조성한 것이 아니라 여러 조화롭지 못한 것들이 연결되어 앞뒤로 떠맡으므로 부라고 이르는 것이다. 부란 곧 조상이 후손에게 떠맡기는 것을 말한다(承者爲前, 負者爲後. 承者, 遇謂先人本承天心而行, 小小失之, 不自知, 用日積久, 相聚爲多, 今後生人反無辜蒙其過謫, 連傳被其災, 故前爲承, 後爲負也. 負者, 流災亦不由一人之治, 比連不平, 前後更相負, 故名之爲負. 負者, 遇先人負於後生者也……)”

24) 히라카와 아키라(지), 이호근(譯), 앞의 책, 201~202쪽 참조. 여기에서는 불교의 인과응보는 12緣起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2연기는 원시불교시대부터 이미 존재하던 개념으로, 12연기란 모든 번뇌의 원인이 되는 無明, 行, 識, 名色, 六入, 觸, 受, 愛, 取, 有, 生, 老死를 말한다.

25) 『阿含經』, “此有則彼有, 此無則彼無; 此生則彼生, 此滅則彼滅.”

26) 何清清, 『佛教因果觀與六朝至初唐志怪小說』, 『西南農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5: 2, 2007. 117쪽 참조.

27) 薛惠琪 撰, 앞의 책, 55쪽 참조.

史雋이나 孫皓는 불상에 대한 불경한 태도 때문에 다리가 마비되고 음양의 부종이 생기는 징벌을 받았으니, 이것은 자신들의 악업에 의한 惡果라 할 수 있다. 선악에 대한 보응은 또 사후 冥界에서도 이행된다. 『幽明錄』에는 바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다.

500여명의 관리들이 인명을 대조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선악의 행실에 따라 몸을 변형하는 길을 각자 지정받았는데, 그 곳에서부터 보내지고 있었다. 살인자는 마땅히 하루살이가 되어 아침에 나서 저녁에 죽을 것이며 만약에 사람이 되더라도 언제나 단명할 것이라 했고, 도둑질을 한 자는 돼지나 양이 되어서 몸을 도살당하고 살은 사람들에게 바쳐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방탕했던 자는 고니와 집오리가 되거나 뱀이 될 것이며, 말을 함부로 했던 자는 올빼미와 부엉이가 되어서 그 악성을 듣는 사람마다 모두 죽으라고 저주할 것이라 했으며, 빛을 갇지 않는 자는 나귀, 소, 말, 물고기, 자라 등이 되리라고 했다.²⁸⁾

趙泰가 목도한 명계의 受變形城이라는 곳은 지옥의 시련을 다 마치고 다른 업보를 받는 공간으로, 이 역시 선악 행위에 의한 보응을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선악 행위에 대한 보응이 사후라 할지라도 계속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고유 사상에도 선대의 행위로 인해 후손이 그 죄과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위 이야기처럼 사후에서까지 스스로 죄과를 감당하고 있지는 않다. 위 내용에 따르면 살생의 죄를 지은 사람은 이후 하루살이, 혹은 사람으로 환생하더라도 短命한다고 하였다. 결국 자신의 악업은 죽어서도 소멸되지 않으니, 이에 대해서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불교의 인과응보인 것이다.

이것은 또 불교의 三世輪回와도 관계가 있다. 사람의 생명은 순환 반복되는 과정이므로 사람의 생활을 前世, 現世, 來世의 三世로 구분하고, 사람은 이 삼세 안에서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불교에서는 사람의 윤회전생의 결과를 여섯 단계로 구분하여 六道라 하였다. 육도란 地獄, 惡鬼, 畜生, 人道, 阿修羅, 天道를 말하는데, 개개인의 현세의 뜻과 행위로부터 윤회전생의 결과가 결정되므로, 선업을 닦은 자는 천상이나 인간세계에 태어나지만, 악업을 닦은 자는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 등의 세계에 태어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전생의 생각이나 행위가 원인이 되어 현세의 결과가 결정되고, 현세의 생각이나 행위는 내세의 원인이 되어 내세의 결과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불교의 인과응보 관념은 불교가 세계의 전반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이론이다. 불교는 인과응보 관념으로 세계의 모든 것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고대 중국에도 인과응보 관념은 있었으나, 불교가 전래되면서 그 사상적 체계가 보다 분명해졌다. 불교는 이미 체계화된 이론을 바탕으로 인과응보에 따른 삼세의 윤회전생 관념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에 대해 훨씬 논리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었다. 특히 삼세의 윤회라는 굴레 안에서 자신의 행위는 불교의 도덕준칙과 계율에 입각하여 선악이 결정되고 이에 대해 반드시 자신이 보응해야했으므로 현세에서의 자신의 생각과 행동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28) 『幽明錄』 247條, “下有五百餘吏, 對錄人名, 作善惡事狀, 受是變身形之路, 從其所趨去。殺者云當作蜉蝣蟲, 朝生夕死, 若爲人, 常短命。偷盜者作豬羊身, 屠肉償人。淫逸者作鵝鶩蛇身, 惡舌者作鴟鴞, 鶻鷂, 惡聲人聞, 皆呪令死。抵債者爲驢馬牛魚鰲之屬。”

원시불교의 연기론과 삼세유회는 불교의 인과응보와 윤회전생의 근원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관념은 불경문학 전체를 관통하는 사유방식이기도 하였다. 불교의 전래와 불경의 번역으로 인해 인과응보 관념은 魏晉南北朝 시기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불경에서 비유나 우화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인과응보와 윤회전생의 이치를 설명했듯이 이 시기 불교류 지괴소설에서도 인과응보를 주제로 한 많은 이야기가 창작되었다. 특히 불교의 인과응보 관념은 삼세의 윤회전생과 연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과도 깊은 관계가 있어, 이와 관련된 주제는 남조시대 불교류 소설의 주요 주제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業에 의한 天堂과 地獄의 死後 관념

불교는 어려운 불교교리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중국 고유의 민간신앙을 흡수해 토착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을 통해 중국 고유의 민간신앙은 풍부한 사상적 원천을 제공받아 크게 발전되었다. 死後 귀신이나 신령이 존재한다는 인식은 고대 중국의 사후관념에도 이미 존재하였다.

혼이여 돌아오라! 그대는 이 어두운 幽都로 내려가지 말지어다. 土伯은 아홉 개의 꼬리를 가지고 있고, 그의 뿔은 날카롭게 솟아 있나니 넓직한 등에 피 묻은 손가락으로 사람을 쫓아 달려올 것이다. 세 개의 눈에 호랑이 머리, 그 몸은 소의 모습을 하고 그것들은 모두 사람을 즐겨 먹는다네. 혼이여 돌아오라. 재앙을 자초할까 두렵도다!²⁹⁾

이것은 죽은 자를 위한 巫歌인 『楚辭·招魂』의 내용이다. 죽은 이들이 幽都에서 만나게 된 土伯과 호랑이 머리에 소의 모습을 한 괴물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잡아먹는 두렵고 무서운 존재들이라 하였으니, 당시 사람들은 사후세계를 어둡고 무서운 곳으로 상상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일체의 만물이 氣의 조화에 의해 생성된다고 여겼던 道家의 세계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陽氣가 모인 존재가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로 陰氣가 모인 존재를 귀신 즉 인간 사후의 존재라 설명하였기 때문이다.³⁰⁾ 결국 고대 중국인들이 나름대로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했던 사후세계는 어둡고 무서운 초현실적 세상이었던 것이다.

남북조 시대 지괴소설 중 『搜神記』에는 冥界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다. 하지만 사후세계에 대한 상상력이 지극히 제한적이라 그 서술이 인간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불교류 지괴소설에서 묘사하는 사후세계와는 차이가 있다.

- ① “관리가 나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관부를 보았습니다. 어떤 깊은 방에 들어갔더니 여러 층의 시렁이 있었습니다. 시렁 위쪽에는 도장이 있고 가운데 시렁에는 검이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가지도록 했습니다. ……문지기가 무엇을 얻었냐고 해서 검을 얻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문지기는. “도장을 얻지 못해 안타깝소. 그것으로 온갖 귀신을 부릴 수 있을테니 말이요.

29) 屈原著, 殷義祥·麻守中注, 『楚辭譯注』, 長春: 吉林出版社, 1998. 『楚辭·招魂』, “魂兮歸來, 君無下此幽都些, 土伯九約, 其角鬻鬻些, 孰舂血拇, 逐人駑駘些, 參目虎首, 其身若牛些, 此皆甘人, 歸來恐自遭災訾.”

30) 卞貴南, 「六朝 佛教類 志怪小說 研究」, 嶺南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2002. 85-86쪽 참조.

검은 오직 토지신만 다스릴 수 있소.”라고 말했습니다.³¹⁾

- ㉔ 계속 앞으로 나아가니 성 하나가 보였고 그곳에는 철 침대에 누워있는 자가 있었는데 침상은 별 쟁게 불에 달구어져 있었다. 무릇 열 군데에 지옥을 둘러봤는데 모두 고통스럽기 그지없었으며, 지옥의 명칭은 赤沙, 白沙, 黃沙 등 七沙라고 했다. 그곳에는 모두 칼산과 칼나무가 있었고 사람들은 붉게 달군 銅기등을 안고 있었으므로 강아득은 얼른 되돌아왔다. 그는 또 칠팔십 간의 기와 집이 있고 길 양쪽에 화나무가 심어진 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은 福舍라고 했다. 불제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복을 많이 쌓은 자는 하늘에서 태어나고 복을 적게 쌓은 자는 그 집에서 살았다.³²⁾

㉕은 賀瑀라는 자가 죽은 지 사흘 만에 깨어나 자신이 본 冥界를 이야기 기록한 『수신기』의 한 부분이다. 하우가 접하게 된 사후세계는 인간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단지 그곳에서 얻은 칼로 귀신들을 부릴 수 있다고 한 사실만을 제외하면, 관리(吏), 관부(官府), 칼(劍)과 도장(印章) 등에 대한 묘사는 인간세상과 거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㉕은 불교 신봉자 康阿得이 명계를 돌아본 것을 기록한 『幽明錄』의 한 부분이다. ㉕의 전후내용을 살펴보면 ㉔처럼 관리나 성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경관이 인간세상의 모습과 비슷하지만 ㉔과는 달리 善惡 행위의 의해 사후세계가 지옥과 천당(福舍)으로 결정된다. 특히 ㉕에서는 악업에 의해 임하게 되는 지옥의 모습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어, 현실세계에서의 인간의 행위가 사후세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㉕의 명계에 대한 묘사에는 여전히 중국 고유의 민간 신앙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지만, 지옥이나 천당에 대한 묘사에 불경의 내용을 활용하고 있고,³³⁾ 현실세계와 사후세계가 因果應報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신앙적 요소가 강한 『수신기』의 소박한 사후세계에 대한 묘사와는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불교의 전래는 생사를 주관하는 하늘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과 사후세계관에 영향을 끼쳤다. 불교에서는 생사를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에 따른 자신의 業에 의한 보응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옥으로 가든 천당으로 가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업에 따른 것이고, 六道輪廻도 스스로의 행위가 자초하는 것이기에 인간이 사후 임하게 되는 초현실적 세상과 이후 사건들이 보다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었다. 五戒(不殺生, 不偷盜, 不邪淫, 不妄語, 不飲酒)와 十善(不殺生, 不偷盜, 不邪淫, 不妄語, 不惡口, 不兩舌, 不綺語, 不貪欲, 不瞋恚, 不邪見)같은 불교의 가르침을 잘 수행한다면 육도 중 천상이나 인간 세상에 태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지옥이나 畜生の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天命이나

31) (晉)王寶 陶潛 撰, 曹光甫·王根林 校點, 『搜神記 搜神後記』,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2. 『搜神記卷十五·賀瑀』, “云: 「吏人將上天, 見官府。入曲房, 房中有層架。其上層有印, 中層有劍, 使瑀惟意所取。……門吏問何得, 云得劍。曰: 「恨不得印, 可策百神。劍, 惟得使社公耳。」”

32) 『幽明錄』 264條, “復前行, 見一城, 其中有臥鐵牀上者, 燒牀正赤。凡見十獄, 各有楚毒。獄名 ‘赤沙’ ‘黃沙’ ‘白沙’, 如此七沙, 有刀產劍樹, 抱赤銅柱, 於是便還。復見七八十梁間瓦屋, 夾道種槐, 云名 ‘福舍’。諸佛弟子住中, 福多者上生天, 福少者住此舍。”

33) 李劍國, 앞의 책, 471쪽 참조. 불교의 ‘지옥’관념은 東漢 말 중국에 유입된 후 六朝기간 동안 지옥 관념과 관련된 많은 불경이 번역되었다고 한다. 동한 安世高의 『佛說十八泥犁經』과 支婁迦讖의 『道行般若經』 卷三 「泥犁品」, 東晉 竺曇無蘭의 『佛說泥犁經』 등이 그것이다.

宿命論을 중심으로 한 고대 중국의 민간신앙을 크게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실세계 자신의 업에 의해 사후세계가 결정된다는 관념은 남조시대 불교류 지괴소설 창작에도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이들 소설을 통해 불교 신봉자들은 불교문화를 전파하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다.

Ⅲ. 『幽明錄』, 『宣驗記』의 내용 분석

『幽明錄』은 東晉시기 干寶의 『搜神記』처럼 巫·道·佛의 사상이 한데 어우러져 서술된 南朝時期的 대표적 志怪小說이다. 『유명록』은 『수신기』 대부분의 내용이 전해들은 말을 수집해 편찬된 것에 반해 그 내용을 『異聞記』, 『博物志』, 『搜神記』, 『搜神後記』와 孔約의 『志怪』 등 晉人의 전적들을 수집해 선별하여 편찬되었다.³⁴⁾ 특히 前人들의 고서 뿐 아니라 晉宋시기의 見聞도 수집해 선별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에 『유명록』에는 남조시기의 시대적 상황이 비교적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卷數면에 있어서도 『유명록』은 남조 志怪小說 중 비교적 편폭이 큰 작품에 속한다.³⁵⁾ 凡人의 仙境여행, 離魂과 꿈 속 정경 이야기 등 『유명록』의 많은 이야기들은 이후 중국소설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약 20條에 달하는 불교 관련된 이야기들은 당시 불교문화의 번성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명록』의 불교류 지괴 20條 중 편폭이 비교적 크고 敘事 方面에서도 문학적 가치가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는 巫師 舒禮, 趙泰, 康阿得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宣驗記』는 불교 선양을 목적으로 지어진 남조시대 최초의 불교류 지괴소설이다. 劉義慶은 『유명록』의 일부 내용에 이미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수록한 바 있지만, 이에 부족함을 느껴 전문적인 불교 선양의 이야기를 수집해 『선험기』를 편찬했다고 한다. 불교 포교 성격이 강한 『선험기』는 불교의 靈驗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異蹟이 주로 기술되어 있다. 觀世音, 불경에 대한 공경을 표하는 염불이나 불상 축조가 惡業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제하고 善業을 쌓는 일임을 내용 전반에 걸쳐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선험기』 35條를 『유명록』과 함께 주제에 따라 내용을 구분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1. 靈驗을 밝힌 이야기

南朝時期 사람들은 거듭된 정권교체로 인해 생명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야했기에 자신들의 고난을 觀世音으로부터 구제받기를 염원하였다. 그러다보니 이 시기 불교류 지괴소설 작가들은 백성들이 불교사상을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靈驗을 주제로 한 지괴소설을 많이 편찬하였다.

34) 李劍國, 앞의 책, 485~486쪽.

35) 『幽明錄』의 권수는 『隋書·經籍志』 21卷, 『舊唐書·經籍志』 30卷, 『琳琅秘室叢書』 162條 등 史書마다 차이가 있지만, 魯迅은 이들 전적들에 기재된 내용과 각종 類書들에서 인용한 『유명록』 고사를 종합하여 『古小說鈎沈』에서 265條를 전하고 있다.

영험을 주제로 한 불교류 지괴소설은 관세음의 異蹟 뿐 아니라 불경과 불상에 대한 공경과 영험함을 통해 불법을 밝히고자 하였는데, 이것은 관세음 신앙에 영향을 준 『法華經』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³⁶⁾ 『법화경』은 大乘經典의 대표적인 저작이며, 불상과 불탑에 대한 공경 역시 대승경전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관세음의 영험, 불경과 불상의 영험으로 구분하여 『宣驗記』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觀世音의 靈驗

觀世音의 영험은 七難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발휘된다. 칠난이란 물(水難), 불(火難), 악귀(羅刹難), 질병(鬼難), 권력(王難), 구속이나 감옥에 갇힘(枷鎖難), 원수나 도적(怨賊難)에 의한 災禍를 말한다.³⁷⁾ 사람들이 칠난에 직면했을 때 관세음의 名號를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듯 등장해 온갖 재화로부터 구제하는 것, 이것이 곧 부처의 대자대비를 시행하는 관세음의 역할이다. 『宣驗記』는 관세음의 응험을 주제로 한 것이 대략 10條로, 다른 주제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선험기』의 관세음 응험 이야기는 대부분 관세음의 명호를 열심히 염송함으로써 죽음과 질병 등의 갖가지 고통에서 구제받는 것으로 전개된다. 다 음은 질병으로부터 관세음의 구제를 받은 이야기이다.

吳郡 사람 安荀은 중병에 걸려 낫지 않자, 승려 法濟가 佛法에 귀의할 것을 조언하였다.

- ㉠ 10살 쯤 되었을 때 중병에 걸려 좋은 약을 다 써보았지만 병세는 날로 나빠질 뿐 차도는 없었다. ……貧道가 불경을 살펴보니, '만약 위험과 고난을 겪을 때 능히 삼보에 귀의하여 참회하면서 염원하는 자는 구제받을 수 있다.'라 했습니다. 당신이 부정한 습속을 버리고 세속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고서 마음을 오로지 다 쏟을 수 있다면 병은 틀림없이 낫게 될 것입니다."……집안에 관세음을 위한 재단을 마련한 뒤 마음과 생각을 정갈히 하고 정성을 기울여 관세음을 우러르면서 병든 몸을 이끌고 이마를 땅에 조아리며 계속 진념했다. 7일이 지난 초저녁에 갑자기 1척 남짓 높이의 황금 불상이 나타나 그의 몸을 머리부터 발까지 세 차례 어루만졌더니, 그 즉시 오래된 병이 한순간에 나아짐을 느꼈다. 안순은 이미 영험을 경험했기에 법제 스님에게 출가를 청하고 太玄臺寺에 머물게 해달라고 청했다.³⁸⁾

도교를 신봉하고 부처를 하찮은 신으로 여겼던 史雋이 다리가 마비되는 병에 걸리자 그의 친구가 조언하였다.

- ㉡ 나중에 병이 들어 다리가 마비되자, 갖은 기도를 다해 보아도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의 친구 조문이 그에게 말했다. “불경의 도행이 복 중 제일이니, 시험 삼아 관세음상을 만들어 보게.” 사준

36) 賴永海 主編, 王彬 譯注, 앞의 책, 前言 6쪽 참조.

37) 賴永海 主編, 王彬 譯注, 483~483쪽 참조. 『法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

38) 劉義慶, 『宣驗記』 3條, “年十餘, 身嬰重疾, 良藥必進, 日增無損. ……貧道案佛經云: ‘若履危苦, 能歸依三寶, 懺悔求願者, 皆獲甄濟.’ 君能捐棄邪俗, 洗滌塵穢, 專心一向, 當得痊愈.”……即于宅內設觀世音齋, 澡心潔意, 傾誠載仰, 扶疾稽顙, 專念相續. 經七月初夜, 忽見金像, 高尺許, 三摩其身, 從首至足, 即覺沈痾豁然消愈. 既靈驗在躬, 遂求出家, 求住太玄臺寺.”

은 병이 위급해지자 친구의 말대로 불상을 주조했다. 불상이 완성되고 나서 관세음 꿈을 꾸었는데, 과연 차도가 있었다.³⁹⁾

두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모두 병에 걸렸지만 관세음의 영험으로 치료되었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에서는 병세를 호전시킬 온갖 좋은 약을 사용했다고 하였고, ㉡에서는 기도로서 병을 치료하고자 하였으나 병은 낫지 않았다. 이에 안순과 사준은 관세음을 위한 재단과 그 불상을 만들어 정성을 다하였고, 병은 그때서야 치료되었다고 하였다. ㉠에서는 안순이 관세음을 모신 곳에서 이마를 땅에 조아리며 염송하였더니, “1척 남짓 높이의 황금 불상이 나타나 그의 몸을 머리부터 발까지 세 차례 어루만져 주었다.”고 하였다. ㉡에서는 사준이 관세음 불상을 만들며 불교에 귀의했더니 “관세음 꿈을 꾸었는데, 과연 차도가 있었다.”고 하였다. 또 ㉠과 ㉡ 두 이야기에서는 모두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불법을 전하는 중개인이 등장한다. ㉠ 이야기에 등장한 法濟는 승려의 신분이기에 불경의 내용을 전달하며 三寶에 귀의할 것을 권한 반면, ㉡의 趙文은 불교 신자일 것으로 추정되긴 하나 보통사람이기에 불경을 언급하면 서도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질병으로부터 구제받는 이와 같은 이야기는 당시 응험기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질병이란 東漢 이래 지속되어온 戰亂,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직면하게 된 당시 사람들의 고난 중 하나였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의 구제는 곧 목숨을 보전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염원이라 할 수 있다. 관세음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자신들의 현실적 고통을 벗어나게 해줄 초월적 존재였다. 東晉 이후 기괴하고 신비한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점차 보편화되면서 당시 사람들은 귀신, 신선 같은 초월적 존재들이 실존할 수 있다고 여겼고, 이런 사회풍조는 관세음이 현실에 등장해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구제해준다는 믿음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전쟁과 포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남북조와 같은 전란이 거듭된 시기에 발생한 포로나 사상자는 당연히 많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바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관세음의 명호를 염송하였다.

車母는 宋 廬陵王이 靑泥에서 패전했을 때, 적군에게 사로잡혀 적의 군영에 갇혀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원래부터 불교를 신봉했기에 즉시 7개의 등을 불상 앞에 켜고 밤마다 마음을 가다듬어 관세음을 염송하면서 아들이 탈출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이렇게 한 해가 지나서 그 아들이 갑자기 돌아왔다. ……7일을 갔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에 도착했다. 그는 어머니가 그때까지 불상 앞에 엎드려 있고 등불 일곱 개가 켜져 있는 것을 보고서야 어찌 된 일인지 알게 되었다.⁴⁰⁾

이것은 전쟁 포로가 된 車母가 석방되어 집에 돌아오게 된 이야기다. 차모는 자신조차 석방의 이유를 모른 채 집으로 오는 길을 재촉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에 도착한다. 패전병으로 포로가 된 사람이 이유도

39) 劉義慶, 『宣驗記』 9條, “後因病脚攣, 種種祈福, 都無效驗。其友人趙文謂曰: ‘經道福中第一, 可試造觀音像。’ 雋以病急, 如言鑄像。像成, 夢觀音, 果得差。”

40) 劉義慶, 『宣驗記』 6條, “車母者, 宋廬陵王靑泥之難, 爲虜所得, 在賊營中。其母先來奉佛, 卽然七燈於佛前, 夜精心念觀世音, 願子得脫。如是經年, 其自忽叛還。……如是七夕, 不覺到家。見其母猶在佛前伏地, 又見七燈, 因乃發悟。”

없이 갑자기 풀려난다거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불빛만 보일뿐 도달할 수도 없는 길을 거쳐 집을 찾는 일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꾼 것은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염원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원래부터 불교 신자로서, 매일 관세음을 염송하며 아들의 평안한 귀가를 기원한다. 불교를 신봉하며 관세음을 염송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적군의 포로였던 아들의 생명을 구한 것이다.

이외에도 포로가 되어 죽을 위기에서 관세음의 자비로 생명을 보존하게 된 이야기도 있다.

吳君 사람 沈甲은 체포당해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다. 저지에서 처형당하는 날, 심감이 마음과 입으로 쉬지 않고 관세음의 명호를 불렀더니, 칼날이 저절로 끊어져 이로 인해 풀려났다.

吳郡 사람 육휘는 감옥에 갇혀 사형에 처해지게 되자, 집안사람들에게 관세음을 만들게 해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빌게 했다. 처형할 때 세 번 칼을 내리쳤으나 그 칼이 모두 부러졌다. 관리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육휘가 대답했다. “아마도 관세음의 자비 때문인가 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상을 샀더니 목 위에 칼자국 3개가 있었다.⁴¹⁾

沈甲과 陸暉는 포로가 되어 사형의 위기에 처한다. 심감은 전심을 다해 관세음의 명호를 외치자 목숨을 건졌고, 육휘는 가족들이 관세음상을 만들어 전심으로 빌었더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관세음을 향한 염송과 기도 이후 “칼날이 저절로 끊어져”, “세 번 칼을 내리쳤으나 그 칼이 모두 부러졌다”고 하며, 그 영험함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관세음을 더욱 현실적인 존재로 생각하게 한다. 사형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주인공이 갑자기 등장한 인물에 의해 구출되는 것은 영웅 이야기의 모티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 이야기가 단순한 영웅 이야기일 수 없는 것은 말미에 서술된 “아마도 관세음의 자비 때문이겠지요.”의 구절 때문이다. 위기에서 구제를 염원하며 염송하는 이들에게 관세음은 어김없이 응답한다. 신력으로 칼날을 끊고 칼을 부러지게 한 관세음의 異蹟은 바로 관세음의 자비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힌 것이니, 이것은 분명 불교 신앙을 목적으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관세음이 질병이나 적군의 포로가 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적을 행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현세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당시 사람들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므로 관세음의 영험 이야기는 끊임없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다.

(2) 불경과 불상의 靈驗

불경이나 불상의 공경으로 인한 靈驗 이야기는 관세음의 형상이 직접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또한 관세음 신앙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불경, 불상, 불탑에 대한 숭배는 大乘佛敎의 흥기와 관계가 있다고 한다.⁴²⁾ 원시불교에서는 보살의 출현으로 중생을 돕는다는 관념이 없었지만 대승불교의 확산으로 대승경전에 관세음의 등장으로 중생이 구제되는 사건이 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승경전의 대표 저작인 『法華經』에도 불상이나 불경에 대한 공경을 통한 異蹟이나 관세음의 명호를 염송하면 구제받는다는 이야기

41) 劉義慶, 『宣驗記』 7條, “吳君人沈甲, 被繫處死。臨刑市中日, 誦觀音名號, 心口不息, 刀刃自斷, 因而被放。吳人陸暉繫獄, 分死, 乃令家人造觀音像, 冀得免死。臨刑, 三刀, 其刀皆折。官問之故, 答云: “恐是觀音慈力。”及看像, 項上乃有三刀痕現。”

42) 賴永海 主編, 王彬 譯注, 앞의 책, 前言 6쪽 참조.

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 釋迦牟尼 入滅 후 聖者の 인격을 그리워 한 대중은 불탑과 불상을 제작하는 한편 성자의 法身은 時空을 초월해 영원하다는 관념을 만들어, 이것은 중생을 언제 어디서나 구제할 수 있다는 신앙의 근거가 되었다.⁴³⁾

불경과 불상의 영험을 밝힌 이야기들은 주로 불경과 불상으로 인해 발생된 이적으로 불법의 위대함을 나타낸 것이 많다.

宋나라 吳興郡에서 일찍이 불이 나 수백 채의 집을 완전히 태워 없었는데, 오직 불경을 보관하는 經堂의 초가만이 불타지 않고 온전했다.⁴⁴⁾

元嘉 8년에 河東의 浦阪城에 불이 났는데 진화가 되지 않았다. 단지 크고 작은 精舍만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온전했으며, 민간의 집에 있던 불경과 불상들도 손상을 입지 않았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기이함에 놀라며 모두 부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깊이 했다.⁴⁵⁾

위 두 이야기 모두 마을에 큰 불이 났지만 불경과 불상들은 전혀 타지 않고 온전했음을 말하고 있다. 부처의 가르침을 담은 불경은 불교 교리의 핵심이며, 불상은 부처의 화신이라 할 수 있으니, 이것들의 이적은 어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때문에 이와 같은 불경과 불상의 신비한 이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법을 믿게 하는 동기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불경과 불상은 불교에서 말하는 三寶로서, 이들에 대한 훼손이나 不敬은 곧 징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음 이야기에 등장하는 孫皓는 금불상을 얻은 후 불경한 행동을 자행한다.

손호는 불상 머리 위에 오줌을 누면서 웃으며 말했다. “오늘이 초파일이니 불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너의 정수리에 물과 醞酬를 붓는 灌頂을 하겠노라.” 그러면서 여러 궁중 여관들을 마주 대하고 즐기며 놀았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호의 음낭이 갑자기 부어올랐는데, 육신거리며 아프고 열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저녁부터 새벽에 이르기까지 몹시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았다. 명의가 약을 바치고 치료했지만 증세는 더욱 심해질 뿐이었다.……손호가 물었다. “부처가 위대한 신인가?” 궁녀가 말했다. “천상천하에 부처 보다 존귀하신 존재는 없습니다. 폐하께서 이전에 얻으신 불상이 아직도 변소 옆에 있으니, 청컨대 그 불상을 모셔와 공양을 드리면 부증이 즉시 나올 것입니다.” 손호는 통증이 급했기에 즉시 향수를 준비하여 직접 불상을 씻어 대전 위에 모셔두고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하며 간절히 빌었다. 그러자 그날 밤에 통증이 멎었으며 부종도 즉시 가라앉았다.⁴⁶⁾

43) 卞貴南, 「六朝 佛教類 志怪小說 研究」, 58~59쪽 참조.

44) 『宣驗記』 5條, “吳興郡內嘗失火, 燒數百家, 蕩盡, 惟有經堂草舍, 儼然不燒。”

45) 『宣驗記』 28條, “元嘉八年, 河東浦阪城大失火, 不可救. 唯精舍大小儼然, 及白衣家經像, 皆不損墜. 百姓驚異, 倍共發心。”

46) 『宣驗記』 18條, “皓乃尿像頭上, 笑而言曰: 「今是八日, 爲爾灌頂。」 對諸婬女, 以爲戲樂. 在後經時, 陰囊忽腫, 疼痛壯熱, 不可堪任. 自夜達晨, 苦痛求死. 名醫上藥, 治而轉增. …… 皓問: 「佛大神邪?」 女曰: 「天上天下, 尊莫過佛. 陛下前所得像, 猶在廁傍, 請收供養, 腫必立差。」 皓以痛急, 卽具香湯, 手自洗像, 置之殿上, 叩頭謝過, 一心求哀. 當夜痛止, 腫卽隨消。”

여기에서는 불상의 이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불상을 대하는 손호의 무례한 태도는 곧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음낭 부종을 발생시킨다. 온갖 방법으로 치료해도 병세가 나아지지 않자 손호는 직접 불상을 씻어 모신 후 머리를 조아리며 마음을 다해 기도를 하고, 그날 밤 그는 고통에서 벗어난다. 불상을 업신여기며 욕을 했던 史雋이 다리가 마비되는 병에 걸렸듯이 불상에 대한 불경죄는 바로 징벌로 이어지고, 이런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경이나 불상에 대한 공경을 반드시 몸소 실천해야만 한다. 趙文이 사준에게 “불경의 도행이 복 중 제일”이라 했듯이 불경과 불상의 영험은 곧 불법에 귀의하는 사람만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작품은 대개 남북조 시대의 격렬한 정치사회적 혼란을 반영하고 있다. 즉 당시의 사회상황은 관세음 신앙을 자연스럽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사회풍조는 문인들에 의해 불교 신앙의 지괴소설로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因果應報 이야기

불교류 志怪小說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주제 중의 하나가 因果應報의 이야기다. 인과응보 관념은 불교 교리의 근본으로, 涅槃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善惡의 因果에 따라 三世와 六道에서 輪廻하는 것을 말한다. 윤회의 굴레를 벗어난다는 것은 수행자에게도 지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부처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수행법을 가르쳤다고 한다.⁴⁷⁾ 제자들에게 가르친 여러 가지 수행법 중 五戒는 이후 불교도들이 지켜야할 기본적인 실천윤리인 동시에 속세의 일반인들도 이행해야할 기본적인 규율이 되었다. 불교 입장에서 세상은 佛家の 輪廻轉生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계의 이행은 곧 불교에서 말하는 善業이고, 반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惡業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報應은 三世六道의 세상에서 반복된다고 할 수 있다. 南朝시대 불교류 지괴소설 중 인과응보의 이야기는 대체로 善業에 대한 善果의 報應, 惡業에 대한 惡果의 報應을 주제로 하고 있기에, 다음에서는 이들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善業에 대한 善果의 報應

불교류 지괴소설에 등장하는 善業에 대한 善果와 惡業에 대한 惡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현세에서 五戒를 수행하거나 佛法僧의 三報에 대한 공경, 그리고 布施나 放生 등의 공덕을 쌓는 선업으로 재앙이나 질병을 피하고 친족의 형벌이 사면되는 등의 선과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선업으로 재앙이나 질병에서 벗어나는 선과 이야기는 자주 등장한다. 『幽明錄』 158條 ‘龐企’는 선업으로 재앙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선과 유형의 전형적인 이야기에 속한다. 죄도 없이 투옥된 방기의 조상은 어느 날 감옥에서 땅강아지를 만난다.

47) 賴永海 主編, 王彬 譯注, 앞의 책, 前言 9쪽 참조.

하루는 그가 감옥 안에서 자기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땅강아지를 보고 “만약 네가 나를 구해준다면 내가 살 수 있게 되지 않겠니?”라고 하며 자기 밥을 던져주었더니 땅강아지가 밥을 다 먹고 나가버렸다. 잠시 후 다시 돌아왔더니 그 몸집이 좀 커져 있어 이상하게 여겼다. 다시 며칠 동안 먹은 것을 더 주었더니 그것은 새끼 돼지만큼 커졌다. 마침내 형을 집행하는 날이 되자 땅강아지가 벽 아래에 커다란 구멍을 뚫어서 그것을 이용하여 도망칠 수 있었다. 이후 사면되어 살 수 있게 되었다.⁴⁸⁾

위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감옥에서 만난 땅강아지에게 밥을 내어주고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밥을 내어주었다고 했으니 이것은 일종의 보시인데, 그 보시의 대상이 인간이 아닌 땅강아지에게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불교적 윤리관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불교적 윤리관에 따르면 세상 모든 만물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에 그 목숨을 구하는 일은 가장 훌륭한 공덕을 쌓는 선업에 속하기 때문이다. 인간에 비하면 미물에 불과하지만 보시의 공덕으로 방기는 감옥에서 벗어나 사면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동진 함강 연간에 예주자사 모보는 주성을 지키고 있었다. 그 때 한 군인이 길이가 너댓 치쯤 되는 흰 거북 한 마리를 무장에서 사다가 항아리에 넣고 키웠는데, 그것이 크게 자라자 강에다 방생했다. 훗날 주성이 석호에게 함락 당했을 때 강을 건너 도망가려 했던 사람들이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 거북을 키웠던 자도 갑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는데 마치 돌덩이 위에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니 그것은 예전에 자기가 놓아준 흰 거북이었다. 거북은 주인을 강변까지 태워다 준 다음 연신 뒤를 돌아보며 떠나갔다.⁴⁹⁾

이 이야기는 위 보시의 보응 이야기와 유사하다. 보시와 방생은 모두 불교 입장에서의 선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을 지키던 군인 한 명은 새끼 거북이 한 마리를 사서 크게 자랄 때까지 잘 키우다가 그것을 강에 방생한다. 어느 날 성은 함당되고 사람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 군인은 물에 뛰어들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난다. 자신이 방생했던 거북이 물로 떨어지는 군인을 태우고 강변까지 태워다 주었기 때문이다. 작자는 선업에 따른 선과를 보시와 방생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이야기는 불교적 색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재앙에서 벗어나는 선과의 예는 三寶에 대한 공경에 의한 것이 특히 많다. 관세음의 명호를 불렀던 沈甲은 칼날이 저절로 끊어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車母는 그의 어머니가 불교를 신봉하며 부처를 염송했기에 적진에서 벗어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이처럼 보시의 공덕을 쌓거나 부처를 염송하고 불교를 신봉하는 행위는 모두 선업에 해당되므로 목숨을 구하거나 적진에서 벗어나는 보응이 따르게 된 것이다. 여러 가지 재앙 중 질병에서 벗어나는 선과는 불경 송독이나 불상 축조 등 삼보 공경의 선업에 따른 것이 대부분인데, 이

48) 『幽明錄』 158條, “見虻蛄行其左右, 相謂曰: ‘使爾有神, 能活我死, 不當生乎?’ 因投飯與虻蛄, 食盡去, 有頃復來, 形體稍大, 意異之. 復與食數日間其大如豚. 及竟報當行刑, 虻蛄掘壁根爲大孔破, 得從此孔出亡. 後遇赦得活.”

49) 『幽明錄』 87條, “晉咸康中, 豫州刺史毛寶戍郟城. 有一軍人於武昌市買得一白龜, 長四五寸, 置甕中養之. 漸大, 放江中. 後郟城遭石氏敗, 赴江者莫不沈溺. 所養人被甲入水中, 覺如墮一石上. 須臾, 視之, 乃是先放白龜. 既得至岸, 廻顧而去.”

것은 앞 절 관세음 신앙 이야기에서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다음 절 惡業에 대한 惡果의 보응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한다.

조태가 부모와 형제를 그곳에서 만나니 서로 흐느껴 울었다. 그 때 두 사람이 문서를 가져와 옥리에 게 칙령을 내리면서 말하기를 무리 중 세 사람의 가족이 부처님을 섬기면서 절에 표기와 일산을 내걸고 향을 피우며 《법화경》을 전하면서 그들의 생전에 지은 죄과를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으니 이곳을 떠나 복사로 가게 하라 하자,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들의 옷이 저절로 입혀졌다.⁵⁰⁾

지옥에서 고통 받던 조태의 부모 형제들은 그들의 친족이 부처를 섬기고 불교를 신봉한 까닭에 죄과를 용서받고 ‘福舍’로 가게 된다. 여기서 복사란 “복을 많이 쌓은 자는 하늘에서 태어나고, 복을 적게 쌓은 자는 복사에서 태어난다.”고 하였듯이 천당과 지옥 사이에 있는 경계를 말하니,⁵¹⁾ 이곳은 淨土는 아니지만 먹고 마시는 걱정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지옥에서의 징벌을 불법을 수호한 친족의 선업으로 복사에서 편안하게 생활, 즉 선과가 구현된 것이다. 불교 교리에 따르면 보응은 원래 모두 자신의 업에 의한 것이기에 삼세의 윤회마다 모두 冥界의 심판으로 자신의 육도윤회가 이행되는데, 위 이야기에서는 현세의 선업으로 죽은 이의 죄과가 사면되었다. 이것은 불교가 중국에 유입된 후 중국 고유 사상과 조화를 이룬 결과라 할 수 있다. 神人感應의 因果觀이나 도교의 承負說에 따르면 업보는 그 자손에게 이어진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 이야기의 조태의 부모형제가 자신들의 죄과를 친족의 선업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중국 고유사상과 융합된 중국 불교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선험기』에도 선업에 대한 선과 이야기가 다양하게 기록되었다. 다음은 선업으로 수명이 연장된 鄭鮮의 이야기다. 관상을 잘 보는 정선은 자신이 短命할 것임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수명을 연장시킬 방법은 알지 못했다.

꿈에 스님이 나타나 물었다. “꼭 수명을 연장하고 싶으시오? 육재일에 방생하면서 선행을 염원하고 재계하면서 계율을 받들면 수명을 연장하고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정선은 불법을 신봉하여 결국 장수하게 되었다.⁵²⁾

꿈에서 만난 스님이 알려준 수명 연장 방법은 六齋日에 방생하고, 재계하며 계율을 받드는 것이다. 육재일은 음력 매월 惡日로 여겨지는 여섯 날로, 불교에서는 이 날을 깨끗하게 재계하고 복을 비는 날로 여긴다.⁵³⁾ 방생과 재계, 그리고 불교적 실천윤리인 계율을 받드는 것은 모두 불교 입장에서의 선업으로 이것을 통해 정

50) 『幽明錄』 247條, “泰見父母及一弟, 在此獄中涕泣。見二人貴文書來, 敕獄吏, 言有三人。其家事佛, 爲有寺中懸幡蓋燒香, 轉《法華經》, 呪願救解生時罪過, 出就福舍, 已見自然衣服。”

51) 『幽明錄』 264條, “福多者上生天, 福少者住此舍。”

52) 『宣驗記』 31條, “夢見沙門問之: ‘須延命也? 可六齋日放生念善, 持齋奉戒, 可以延齡得福也。’ 因爾奉法, 遂獲長年。”

53) 劉義慶(저), 김장환(역), 『宣驗記』, 서울, 지식의 만든 지식, 2013. 59쪽, 주31 참조.

선은 수명이 연장되었다. 스님의 말을 따라 불법을 신봉하였기에 주인공은 수명이 연장되는 선과를 얻게 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전문적인 불교 포교서 『선협기』에 실려 있는 까닭에 위 『유명록』의 선업선과 이야기보다는 불교 선양의 분위기가 비교적 강하다. 하지만 이들 이야기의 공통적인 주제는 선업에 대한 선과로, 작자는 당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통해 선업선과와 악업악과의 도덕적 교화 뿐 아니라 불교 선양의 효과를 동시에 이루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業에 대한 惡果의 報應

惡業에 대한 報應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위 善業 이행의 반대되는 행위로 惡果가 초래된 경우의 것들이다. 五戒의 불이행, 三報에 대한 不敬 등의 악업에 따른 악과는 주로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된다.

살생에 의한 응보 이야기는 악업악과 작품들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주제이다.

태산부군이 “그대는 세간에서 무엇을 했는고?”라고 묻자 서례는 대답했다. “3만 6천의 신을 모셨고 사람들을 위해 액막이 기도를 하고 제사를 올렸으며 송아지, 돼지, 양, 닭, 오리를 죽여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부군이 이 말을 듣고 “네 높은 신에게 아부하기 위해 살생을 저질렀으니 그 죄값으로 담금질을 당해야겠다.”라고 하며 관졸들에게 그를 형장으로 끌고 가게 했다. 거기에서 소머리에 사람의 몸을 한 괴물을 보았는데 철 삼지창을 들고 와서 서례를 꿰어 이끌거리는 쇠 침대 위에 올려놓고 돌리니 서례의 온몸은 타서 문드러지고 죽으려 해도 죽을 수가 없었다.⁵⁴⁾

이것은 『幽明錄』 83條 ‘舒禮’이다. 현생에서의 신분이 박수였던 서례는 소, 돼지, 양 등의 제물로 제사를 지냈고, 이로 인해 그는 지옥에서 지독한 고통을 감수해야 하였다. 제물을 바쳐 제사지내는 것은 원래 중국 고유의 풍속에 속한다. 齊宣王이 중에 피를 바르는 의식을 위해 소 대신 양으로 제물을 바쳐 백성들에게 인색하다고 여겨진 일이 있을 정도로 고대 중국의 血祭는 고유의 제사 풍속이며 의무이기도 하였다.⁵⁵⁾ 하지만 본문의 서례는 소와 돼지 등을 제물로 제사를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泰山府君의 심판의 받게 되었다. 이것은 오계 중 으뜸인 살생에 대한 보응, 즉 불교 교리에 따른 악업악과라 할 수 있다. 고대 제사의식에서의 살생은 일반적 관념의 살생은 아니지만 불교 입장에서 살생의 범위는 생명에 있는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살생 역시 악업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불교 오계 중 으뜸으로 꼽는 실천윤리가 살생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응보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징벌일 수밖에 없다.

54) 『幽明錄』 83條, “太山府君問禮: ‘卿在世間, 皆何所爲?’ 禮曰: ‘事三萬六千神, 爲人解除祠祀, 或殺牛犢猪羊鷄鴨.’ 府君曰: ‘汝佞神殺生, 其罪應上熱熬.’ 使吏牽捉熬所, 見一物, 牛頭人神, 捉鐵叉, 叉禮者熬上宛轉, 身體焦爛, 求死不得。”

55) 楊伯峻 譯注, 『孟子譯注』, 北京, 中華書局, 2000, 23쪽. 「梁惠王章句 上」, “왕께서 대청에 앉아계실 적에 소를 끌고 대청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왕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소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하셔서 ‘이 소로 중에 피를 바르려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그 소를 내버려 두거라.’……‘그럼 중에 피를 바르는 것을 그만두니까?’라고 말했더니, ‘어찌 그만 둘 수가 있는가? 양으로 바꿔서 하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王坐於堂上, 有牽牛而過堂下者, 王見之, 曰: ‘牛何之?’ 對曰: ‘將以繫鐘.’ 王曰: ‘舍之!……’ 對曰: ‘然則廢繫鐘與?’ 曰: ‘何可廢也? 以羊易之!’ 王夫之는 ‘繫’을 제사의 명칭으로, 血祭라 한다(繫, 祭名, 血祭也.)”고 하였기 때문에 繫鐘이란 당시 국가에서 중요한 기물을 중요에서 새롭게 사용하려 할 때에 이행했던 의식의 하나로, 이때에는 반드시 산 제물을 잡아 제사를 지내야 했다고 한다.

위 이야기에서 서례는 소, 돼지, 양 등을 죽여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태산부군은 “네 높은 신에게 아부하기 위해 살생을 저질렀으니 그 죄값으로 담금질을 당해야겠다.”고 심판하였을 뿐 아니라, 소머리 괴물에게는 그를 삼지창으로 꿰어 온몸이 타서 문드러질 정도로 돌리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서례의 살생 악업이 악과의 징벌로 심판된 것은 바로 불교 계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유명록』 247條 ‘趙秦’에서 “인간이 죽으면 가게 되는 三惡道라는 곳이 있는데 살생을 저지르면 죄가 가장 무겁다.”라 한 것도 살생이 오계의 으뜸임을 설명한 것이다.⁵⁶⁾ 악업을 행한 사람이 죽어서 가게 되는 곳이 地獄, 畜生, 餓鬼의 삼악도인데, 악업 중에서도 살생의 죄가 가장 무겁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와는 달리 오계를 잘 수행한 자는 “福舍에서 태어나 편안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⁵⁷⁾ 대비적인 상황을 통해 선업선과와 악업악과를 분명히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선협기』에도 살생으로 인한 악과의 보응 이야기가 있다.

왕도는……과연 새그물을 쳐서 까치를 잡아 그 혀를 잘라 죽였다. 그랬더니 형제가 모두 병어리가 되고 말았다.⁵⁸⁾

주씨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병어리여서 말을 할 수 없었다.……손님이 말했다. “어렸을 때 일을 다시 잘 잘 생각해 보시오.” 주씨가 안으로 들어갔다 한 식경쯤 후에 나와서 말했다. “기억해보니 제가 어렸을 때……열매가 단단하고 가시가 있는 남가새 열매 세 개를 가져다 제비새끼 각각에게 먹게 했는데 얼마 후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⁵⁹⁾

王導의 세 형제와 周氏의 아들 세 명이 병어리가 된 것은 모두 살생 악업에 의한 것이다. 이들 이야기는 『유명록』 ‘서례’처럼 살생으로 인한 징벌을 받게 된다는 보응의 결과는 동일하다. 하지만 자신의 살생 악업에 대한 응보를 받았던 서례와 달리 본문의 왕도와 주씨는 자신의 과거 살생 악업으로 인해 그들의 형제와 자손이 병어리가 되는 응보를 받게 되었다. 이것은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중국 고유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신의 악업은 친족을 통한 보응으로 구현되기도 하였으므로 왕도와 주씨의 살생 악업으로 인한 병어리의 응보가 친족을 통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계에 따르면 도둑질도 하지 말아야 할 실천윤리 중 하나이다. 『유명록』 ‘조태’에서 “도둑질을 한 자는 돼지나 양이 되어서 몸을 도살당하고 산 사람들에게 바쳐질 것이다.”라고 하였듯이 도둑질은 일상생활에서나 불교 입장에서 이행하지 말아야 하는 윤리적 행동이므로, 이로 인한 응보는 당연히 악과로 이어진다.

56) 『幽明錄』 247條, “人死有三惡道, 殺生禱祠最重。”

57) 『幽明錄』 247條, “生在福舍, 安穩無爲。”

58) 『宣驗記』 13條, “王導……果張取鵠, 斷舌而殺之。兄弟悉得瘖疾。”

59) 『宣驗記』 12條, “周氏有三子, 並瘖不能言。……客曰: ‘試更思幼時事。’ 入內, 食頃, 出曰: ‘記小兒時……乃取三蒺藜, 各與之吞, 既皆死。’”

天竺의 어떤 승려가 암소 두 마리를 길러 날마다 우유 석 되를 얻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우유를 구걸하자 소가 말했다. “나는 전생에 종이었는데 法食을 흠쳤기에 현생에서 우유를 바치고 있습니다.”⁶⁰⁾

이것은 『선협기』14條의 이야기이다. 본문의 소는 전생에 법식을 흠친 까닭에 현세에 동물로 轉生한 것이다. 불교에서는 승려가 법제에 따라 먹는 음식을 법식이라 한다.⁶¹⁾ 그러므로 전생에 법식을 흠쳤다는 것은 불교류 지괴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원이나 불교와 관련된 물품을 도둑질한 행위에 해당된다. 당시 불교류 지괴소설에서 사원 물품의 도둑질에 의한 응보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 것은 당시 사회적 상황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⁶²⁾ 지독히 가난하게 살아가야해야 했던 당시 백성들의 생활과 절을 비롯한 사원들의 경제적 풍요로 야기된 심각한 빈부차이는 백성들이 사원의 물품을 흠치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이다. 현세에 죽거나 치유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살생에 대한 악과보다는 도둑질로 인한 보응이 다소 가벼운 느낌이긴 하지만 본문에서처럼 악업으로 현세에 축생으로 태어나는 보응을 피하지는 못했다.

불교에서는 오계의 실천 뿐 아니라 三寶에 대한 악업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 이에 대한 보응을 주제로 한 불교류 지괴소설이 많다. 삼보는 佛寶, 法寶, 僧寶를 말한다. 釋迦牟尼를 대신할 각종의 불상을 불보, 석가모니의 교리가 담긴 불경과 기타 불교저술을 법보, 출가해 석가모니의 교리를 이행하는 승려, 비구니 등의 불교도를 승보라 한다.⁶³⁾ 석가모니의 入滅 후 불교는 이들 불법승에 의지해 불교 정신을 유지하고 불교의 교리를 전파하였으므로, 삼보에 대한 공경은 곧 불법의 신봉을 통해 선업을 이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삼보에 대한 불경은 곧바로 그에 따른 악과로 보응되는데, 이에 관한 이야기는 『선협기』에 자주 등장한다.

佛佛은 오랑캐가 冀州를 격파하고 경내 승려와 사람들을 모두 살육했으며, 흉악한 만행을 자행하면서 사람을 죽이는데 싫증 내지 않았다. 關中에 이르니 죽은 이가 절반이 넘어, 부녀자와 아이의 시체가 산처럼 쌓였다. 불불은 마음 내키는 대로 사람을 해치며 이것을 즐거움으로 여겼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 “나 불불은 사람들 중의 부처니 예배를 받을 만하다.” 그리고는 곧장 불상을 그려서 등에 붙이고 궁전에 앉아 나라 안 승려들에게 명을 내렸다. “내 등을 향해 불상에 예배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예배하는 것이다.” 나중에 밖으로 나들이했다가 비바람이 갑자기 몰아쳐 사망이 어둠으로 막히는 바람에 돌아갈 방향을 알지 못했는데, 번개와 천둥이 내리치는 가운데 벼락에 맞아 죽었다. 불불을 장례 지낸 후에 그의 무덤에 가 보았더니 관에 벼락이 쳐서 시체가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의 등에는 ‘흉학무도’의 글자가 쓰여져 있었다.⁶⁴⁾

60) 『宣驗記』14條, “天竺有僧, 養二牝牛, 日得三升乳. 牛曰: ‘我前身爲奴, 偷法食, 今生以乳饋之.’”

61) 劉義慶(지), 김장환(역), 27쪽, 주13 참조.

62) 薛惠琪, 앞의 책, 128쪽 참조.

63) 薛惠琪, 위의 책, 124쪽 참조.

64) 『宣驗記』34條, “佛佛虜破冀州, 境內道俗, 咸被殲戮, 凶虐暴亂, 殘殺無厭. 爰及關中, 死者過半, 婦女嬰稚, 積骸成山. 縱其害心, 以爲快樂. 仍自言曰: ‘佛佛是人中之佛, 堪受禮拜.’ 便畫作佛像, 背上佩之, 當殿而坐, 令國內沙門: ‘向背禮像, 卽爲拜我.’ 後因出遊, 風雨暴至, 四面暗塞, 不知所歸, 雷電震吼, 霹靂而死. 既葬之後, 就塚霹靂其棺, 引屍出外, 題背爲‘凶虐無道’等字.”

佛佛은 스스로를 부처라 칭하며, 등에 불상을 그려 붙이고는 승려들에게 자신의 등에 예배를 드릴 것을 명령하였다. 불불의 이와 같은 행동들은 대표적인 삼보에 대한 불경에 해당된다. 그는 이로 인해 벼락을 맞아 죽고, 사후에도 관이 벼락을 맞아 시체가 밖으로 드러나는 보응을 받게 된다. 『선협기』 18條 ‘孫皓’와 35條 ‘丁零’도 삼보에 대한 과거 악업으로 악과의 응보를 받은 이야기이다. 손호는 불상을 변소 옆에 두었을 뿐 아니라 그 머리에 오줌을 누는 불경을 저질러 음낭이 부어오르고 열이 나는 응보를 받았고, 활을 쏘아 불상의 얼굴을 맞춘 정령은 병에 걸려 주살을 당하였다. 자신이 행한 삼보에 대한 불경은 악과의 보응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불교의 인과응보 관념은 생활 곳곳에 반영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악업 대신 선업을 쌓아야 함을 권고하는 동시에 불교를 선양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특히 악업에 대한 악과의 보응은 오계의 불이행과 삼보에 대한 불경으로 인한 응보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였다. 『유명록』 98條 ‘王輔嗣’, 148條 ‘桂陽郡老翁’ 등도 모두 악업악과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다. 불교류 지괴소설에 선업선과, 악업악과의 인과응보 유형의 이야기가 유독 많은 것은 이들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선업은 장려하고 악업은 버릴 것을 권고하는 동시에 이들 작품을 통해 불교 교리를 자연스럽게 선양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3. 冥界과 還生 이야기

『幽明錄』의 ‘舒禮’ ‘趙泰’ ‘康阿得’, ‘石長和’ 이야기는 불교의 死後 관념이 반영된 대표적인 작품들로, 이것들은 이후 『冥祥記』를 비롯한 불교류 지괴소설과 고전소설의 발전에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하였다. 冥界에 대한 기록이 많았던 『搜神記』의 경우를 살펴보면 ‘현실세계-명계’가 그다지 긴밀하게 연계되어있지 않다. 『수신기』에서는 명계에 대한 묘사가 대부분 단순하고, 명계에 출입하는 방식도 꿈을 통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자들은 명계를 현실세계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유명록』의 불교류 지괴소설에서는 명계진입 이후 泰山府君 등을 통한 엄격한 심판과 지옥에 대한 상세한 묘사, 그리고 환생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명계를 부각시키고 있다. 또 독자들은 환생한 이들의 체험담을 통해 현실세계에서의 행위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수신기』보다 ‘현실세계-명계’의 관계가 보다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명계를 상징하는 태산부군과 지옥, 그리고 死者가 명계에서 目睹하게 된 일련의 체험 내용을 살펴보고 당시 불교류 지괴소설에 반영된 불교적 사후세계 관념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1) 징벌의 공간 ‘地獄’

불교의 지옥 관념은 南朝時期 크게 유행하였을 뿐 閻羅王이 죄인을 심판한다는 이야기도 이미 존재하였다.⁶⁵⁾ 하지만 死者의 심판관을 주재자(主者), 貴人, 府君, 鬼王 등의 명칭으로, 地獄은 泰山, 泰山獄, 泰山地

65) 薛惠琪, 앞의 책, 68-69쪽 참조.

獄 등 중국 고유의 태산신앙에 부합되는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漢譯 불경의 格義처럼 불교문화 토착 과정의 일면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의 혼백이 모이는 태산과 인간의 수명과 禍福이 태산부근에 의해 주관된다는 중국 고유의 민간신앙은 당시 유행하던 불교의 지옥 관념과 함께 어우러져 불교적 死後世界를 대표하는 명계의 모습으로 묘사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 불교류 지괴소설에서는 명계의 ‘지옥’ 모습이 특히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교문화와 관계가 있다. 여기에는 공포스런 징벌의 공간 지옥을 통해 현실세계의 인간이 惡業 대신 善業을 쌓게 하고자 하는 작자들의 불교 선양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문이 모두 끝나자 그를 수관에게 보내 관리가 되게 했다. 그곳에 가니 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래를 언덕 위로 나르면서 주야로 고통 받고 있었고 모두들 울면서 “생전에 선을 행하지 않아서 이곳에 떨어졌습니다.”라며 누우치고 있었다.……다시 泥犁地獄에 도착하자 남자 육천 명이 보였다. 그곳에는 불 나무가 있었는데 세로 너비만도 오십여 보이고 높이는 천 길이나 되었으며 사방이 모두 칼로 둘러싸여 있었다. 나무 위에는 불이 활활 타고 있었고 그 아래로 사람들이 열 명, 다섯 명씩 불 갈 위로 떨어져 몸이 관통되고 있었으며 입으로는 “이 사람은 남에게 저주와 욕을 했으며 남의 재물을 빼앗고 거짓말로 선량한 사람들을 해쳤습니다.”라고 했다.⁶⁶⁾

지옥은 원래 梵語 ‘Niraya’를 음역한 ‘泥犁’를 번역한 단어로, 그 의미는 고통을 받는 곳을 말한다.⁶⁷⁾ 일체의 즐거움이 존재하지 않는 ‘無有’의 泥犁는 한역 불경에서 지옥으로 번역되면서 사람들은 ‘지옥’을 인간의 사후 악업에 의한 고통 받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⁶⁸⁾ 위 이야기는 趙泰가 명계를 돌아보며 직접 목도한 모습을 묘사한 것인데, 여기에서의 지옥 역시 악업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공간으로 묘사되어 있다. 조태가 만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생전에 선을 행하지 않거나”, “남에게 저주와 욕을 했으며 남의 재물을 빼앗고 거짓말로 선량한 사람들을 해친” 악업을 행한 이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본문에서 조태가 泥犁地獄에 도착해 접하게 된 불나무와 불칼로 몸이 관통되는 모습은 주야로 노동에 혹사당하던 이들의 고통과는 다른 공포스러운 지옥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공포 분위기의 지옥은 『유명록』 82條 ‘舒禮’에도 있다.

소머리에 사람의 몸을 한 괴물을 보았는데 철 삼지창을 들고 와서 서레를 꿰어 이글거리는 쇠 침대에 올려놓고 돌리니 서레의 온몸은 타서 문드러지고 죽으려 해도 죽을 수가 없었다.⁶⁹⁾

조태가 보았던 불 갈 위로 떨어져 몸이 관통되는 고통을 받는 이들처럼 서레는 제사를 위한 재물을 살생

66) 『幽明錄』 247條, “斷問都竟, 使爲水官監作吏. 將千餘人接沙著岸上, 晝夜勤苦, 啼泣悔言: 「生時不作善, 今墮此處。」……復到泥犁地獄, 男子六千人. 有火樹, 縱廣五十餘步, 高千丈, 四邊皆有劍, 樹上然火, 其下十五五, 墮火劍上, 貫其身體. 云: 「此人呪咀罵詈, 奪人財物, 假傷良善。」”

67) 薛惠琪, 앞의 책, 65쪽 참조.

68) 薛惠琪, 위의 책, 83쪽 주 48 참조. 『法苑珠林·地獄部』, “又名泥犁者, 梵音, 此名無有.”

69) 『幽明錄』 83條, “牛頭人神, 捉鐵叉, 叉禮者熬上宛轉, 身體焦爛, 求死不得.”

했다는 악업으로 인해 철 삼지창에 꿰어지고 쇠침대에서 몸이 문드러지도록 타는 고통을 받는다. 이와 같은 지옥에 대한 잔혹한 묘사는 현실세계에서 악업을 저지르지 말고 불교를 신봉해야한다는 강한 메시지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공포스런 지옥의 모습은 이와 반대되는 공간인 천당을 통해 더욱 부각되기도 한다.

조태가 또 어떤 문 앞에 이르니 ‘개광대사’라고 씌어져 있었는데, 삼중문이 있었고 모두 흰 벽과 붉은 기둥으로 지어져 있었다. 세 사람이 문을 들어서자 대전이 진귀한 보물로 꾸며져 해처럼 빛났다.⁷⁰⁾

지옥에 대한 묘사에 비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선업을 쌓거나 불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임하게 되는 천당은 분명 지옥과는 다르다. 때문에 몸이 타들어가고 쇠창살로 꿰어지는 고통을 끊임없이 견뎌내야 했던 징벌 공간 지옥은 천당과 대조되며 공포 분위기가 한층 부각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선업을 쌓고 악업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불교류 지괴소설 작가들은 징벌 공간 지옥을 이처럼 공포스런 분위기로 묘사함으로써 불경의 지옥이 실제로 존재함을 증명하고, 나아가 인과응보로 결정되는 명계의 심판을 위해 사람들은 현실세계에서 선업을 쌓고 불교를 신봉해야 함을 이야기를 통해 전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冥界여행 이야기

주인공이 직접 체험한 冥界여행 이야기는 因果應報와 輪廻轉生 관념과 깊은 관련이 있다. 불교적 세계관에 따르면 한 개인의 행위 즉 業에 의해 다음 생이 결정되기에, 六道 윤회전생은 곧 인과응보로 초래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류 지괴소설에는 보편적으로 명계여행 이야기를 다룬 것이 많다. 명계여행 이야기에는 인과응보와 연계된 사후세계 모습이 환생한 이들의 체험담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 불경속 지옥 모습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선업 쌓기를 권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齊梁 『冥祥記』에 비해 劉宋시기 『유명록』의 명계여행 이야기는 과도기적 단계에 불과하지만 ‘명계 진입 - 선악 행위에 의한 심판과 천당과 지옥의 모습 - 환생’이라는 이야기 구조는 이후 명계여행 이야기들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므로 다음에서는 이 순서에 따라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冥界 진입

冥界에 도달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명계 진입 후 처하게 되는 주인공들의 상황은 유사하다.

그가 막 죽었을 때 누런 말을 탄 두 사람이 병사 두 명을 거느리고 나타났는데, 그들은 단지 잡아끌고 가라고만 말했을 뿐이었고 두 병졸이 그의 양쪽 겨드랑이를 붙잡아 동쪽으로 끌고 갔다. 몇 리를 갔는지는 모르지만 드디어 쇠처럼 견고하게 높이 솟은 큰 성이 나타났는데, 성의 서문으로 들어가자

70) 『幽明錄』 247條, “往詣一門, 云“開光大舍。”有三重門, 皆白壁赤柱, 此三人即入門, 見大殿珍寶羅日。”

관사들이 보였다. 그가 이중으로 된 검은 문을 들어서자 들보가 수십 개 잇는 기와집이 보였다. 그곳에는 5~60명의 남녀가 와있었다.⁷¹⁾

막 죽었을 때 두 사람이 나타나서 거드랑이를 붙잡았고 백마를 탄 관리가 갈 길을 재촉했는데, 몇 리를 갔는지 모르지만 앞에 북향한 검은 문이 보였다. 남쪽으로 들어가니 동향한 검은 문이 보였고 서쪽으로 들어가자 남향한 검은 문이 보였으며 북쪽으로 들어가자 십 여 칸의 기와집이 나타났다.⁷²⁾

위 두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다. 주인공이 죽자 말을 탄 병사가 나타나 死者의 거드랑이를 잡고 명계로 주인공들을 데려가고, 그들은 그곳에서 검은 문과 기와집을 발견한다. 조태와 강아득이 처음 접하게 된 명계의 모습은 현실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아 현실과 거리감을 느낄 수가 없다. 주인공들을 명계로 진입시킬 병사(관리)의 호송 역시 강제적이지 않아 독자들은 주인공과 함께 자연스럽게 명계로 진입하게 된다. 그러나 巫師舒禮와 石長和의 명계 입문은 이들과는 조금 다르다.

길 양쪽에는 독수리 발톱 같은 가시가 나 있었는데 크고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마치 누구에게 쫓기는 것처럼 가시덤불 속으로 달려들어 가더니 몸이 찢겨져 땅에는 핏덩이가 질렀다. 가시덤불 속 사람들은 석장화가 평평한 대로를 혼자 가는 것을 보고 “불제자 홀로 즐겁게 대로로 가는구나.”라며 탄식했다. 앞으로 나아가니 들보가 칠팔십 개나 되는 기와집이 보였고 그 집의 중앙에는 들보가 십여 개나 되는 누각이 있었다.⁷³⁾

석장화가 접하게 된 명계까지의 길은 가시덤불과 평평한 길로 구분되어 있었다. 주인공은 평평한 대로를 홀로 걸었으니 그가 악업의 보응 대상이 아님을 심판받기 전에 이미 보여주고 있다. 대조되는 두 개의 길이 명계 진입까지 사람을 인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명계 진입 후 접하게 된 광경은 조태와 강아득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서례는 병사 대신 토지신을 만나 명계로 진입하게 되고, 심판관을 만나기 전 문지기를 통해 그곳 기와집에는 불경을 읽거나 제송을 노래하는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⁷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계여행 이야기의 처음 부분은 명계진입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조태와 강아득의 경

71) 『幽明錄』 247條, “有二人乘黃馬, 從兵二人, 但言捉將去, 二人扶兩腋東行, 不知幾里, 便見大城如錫鐵崔嵬, 從城西門入, 見宮府舍, 有二重黑門, 數十梁瓦屋. 男女當五六十.”

72) 『幽明錄』 264條, “初死時, 兩人扶腋, 有白馬吏驅之, 不知行幾里, 見北向黑閤門, 南入見東向黑門, 西入見南向黑門, 北入見有十餘梁間瓦屋.”

73) 『幽明錄』 265條, “道兩邊棘刺皆如鷹爪, 見人大小群走棘中, 如被驅逐, 身體破壞, 地有凝血. 棘中人見長和獨行平道, 嘆息曰: 「佛弟子獨樂, 得行大道中。」前行見七八十梁瓦屋, 中有閣十餘梁.”

74) 『幽明錄』 83條, “죽은 뒤 토지신에게 이끌려 태산까지 가게 되었다. 그 무렵에는 박수를 도인이라고 불렀다. 저승에서 복사에 이르자 토지신이 문지기에게 “이곳은 어떤 이들이 사는 집인가?”라고 물었다. 문지기가 “도인이 사는 곳입니다.”라고 대답하니, 토지신은 “이 사람도 도인이니 여기에 살면 되겠군.”이라고 했다. 서례가 문 안으로 들어가자 수천 칸의 기와집이 보였는데 집집마다 대나무밭이 걸러있고 평상이 자연스레 놓여 있었다. 그곳에서는 남녀가 따로 거처했는데, 불경을 읽거나 제송을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편안하게 먹고 마시는 자도 보여 즐겁기가 그지 없었다(土地神將送詣太山. 俗人謂巫師 爲道人, 路過冥司福舍前, 土地神問吏: “此是何等舍?” 吏曰: “道人舍.” 土地神曰: “是人亦道人, 便以相付.” 禮入門, 見數千間瓦屋, 皆懸竹簾, 自然牀榻, 男女異處, 有誦經者, 唄偈者, 自然飲食者, 快樂不可言.)”

우는 명계 병사, 서레는 토지신에 의해 명계까지 호송되었고, 석장화는 자신이 직접 명계로 진입하였는데 이때 그를 인도한 것은 주인공의 전생 행위를 짐작할 수 있는 길에 의해서였다. 명계까지 死者의 여정이 호송 여부를 떠나 현실세계에서 명계로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환생한 이의 체험담은 더욱 현실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② 善惡에 대한 심판과 지옥과 천당

冥界 진입 이후 명계 모습이 이야기의 중심 부분에 해당된다. 이 부분에서는 死者의 일생을 총괄하여 業에 따른 報應 관념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주인공들이 진입하게 된 명계는 전생 善惡의 심판관 泰山府君의 등장과 그의 결정으로 지옥과 천당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묘사된다.

태산부군은 서쪽에 앉아서 이름을 명부와 대조해보고 있었다. 또다시 남쪽으로 검은 문을 들어서니, 붉은 옷을 입은 사람 하나가 큰집에 앉아서 차례대로 호명하면서 생전에 했던 일과 지은 죄과, 쌓은 공덕과 선행 등을 물어보았다.……조태가 이에 “조금도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심문이 모두 끝나자 그를 수관에게 보내 관리가 되게 했다.⁷⁵⁾

趙泰는 태산부군을 만나 현실세계에서 자신의 행위를 심판받게 된다. 심판관들의 명부 대조와 명계 범를 근거해 자신의 행위를 생각했을 때 악업을 행한 적이 없다고 판단되어 그는 관리가 되고, 명계를 돌아보게 된다. 조태가 돌아본 지옥과 천당은 불교의 因果應報가 철저히 실현되는 공간이었다. 불나무와 불 칼로 고통 받는 지옥에는 전생에 선업을 쌓지 않거나 도둑질 등 남을 해치는 악업을 행한 이들이 있었다. 그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조태가 둘러본 명계는 지옥 이외에 선악 행위에 따라 輪廻轉生이 행해지는 공간도 있었다.

살인자는 마땅히 하루살이가 되어 아침에 나서 저녁에 죽을 것이며 만약에 사람이 되더라도 언제나 단명할 것이라 했고, 도둑질을 한 자는 돼지나 양이 되어서 몸을 도살당하고 살은 사람들에게 바쳐질 것이라고 했다.⁷⁶⁾

위 사람들은 살생, 도둑질의 악업을 쌓았기 때문에 畜生으로 전생되는 심판을 받았다. 심판은 “오백 명의 관리들이 인명을 대조하며 사람들의 선악 행위에 따라 몸의 변형을 각자 지정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태산부군도 심판을 내리기 전 이름과 명부를 대조하며 전생 행위의 선악 여부를 死者에게 직접 물어본 후 심판을 내린다. 이와 같은 명계 심판관들의 엄격한 태도는 선악 행위에 따른 보응의 불교 법칙이 철저히 실현되

75) 『幽明錄』 247條, “府君西坐, 斷勘姓名。復將南入黑門, 一人絳衣, 坐大屋下, 以次呼名, 前問生時所行事, 有何罪故, 行何功德, 作何善行。……泰答: “一無所爲不犯惡。斷問都竟, 使爲水官監作吏。”

76) 『幽明錄』 247條, “殺者云當作蜉蝣蟲, 朝生夕死, 若爲人, 常短命。偷盜者作猪羊身, 屠肉償人。淫逸者作鵠鵝蛇身, 惡舌者作鷓鴣, 鶻鷃, 惡聲人聞, 皆呪令死。抵債者爲驢馬牛魚鱉之屬。”

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사람들이 불법을 수호하고 五戒十善과 같은 불교 가르침을 준수하도록 한다. 엄격한 심판을 통해 전생의 행위가 그대로 보응되기 때문이다.

악업을 쌓지 않은 조태는 관리가 되어 명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巫師 舒禮는 태산부로 이송된 후 지옥으로 보내지는 심판을 받는다.

태산부군이 “그대는 세간에서 무엇을 했는고?”라고 묻자 서례는 대답했다. “3만 6천의 신을 모셨고 사람들을 위해 액막이 기도를 하고 제사를 올렸으며 송아지, 돼지, 양, 닭, 오리를 죽여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부군이 이 말을 듣고 “네 높은 신에게 아부하기 위해 살생을 저질렀으니 그 짓값으로 담금질을 당해야겠다.”라고 하며 관졸들에게 그를 형장으로 끌고 가게 했다.⁷⁷⁾

불법을 수호하지 않고 살생을 저지른 서례는 지옥에서 삼지창에 찔리고 쇠 침대에서 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받는다. 악업에 따른 보응인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선업을 쌓거나 불교를 신봉하는 자들은 천당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심판을 받는다.

동북쪽으로 나와 몇 리를 갔는지 모를 때 성 하나가 보였는데 사방이 수십 리였고 성 안 가득 집들이 오밀조밀 자리 잡고 있었다. 거기에서 그는 부처님을 모시기전 돌아가신 백부와 백모, 숙부와 숙모를 만나게 되었다. 모두 차꼬를 차고 있었으며 옷은 뜯어지고 온몸은 고름과 피투성이였다.……그곳은 복사라 했다. 불제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복을 많이 쌓는 자는 하늘에서 태어나고 복을 적게 쌓는 자는 그 집에서 살았다. 멀리 이십여 칸의 큰 집이 보였는데 두 남자와 두 부인이 집 아래로 내려오기에 바라보니 바로 강아득이 부처님을 모신 후 돌아가신 백부와 백모, 숙부와 숙모였다.⁷⁸⁾

강아득이 부처를 봉양하기 전후로 명계에서 만난 백부와 숙부 내외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부처를 모시기 전에 돌아가신 친지는 “차꼬를 차고 있었으며 옷은 뜯어지고 온몸은 고름과 피투성이” 모습으로, 부처를 모신 후 돌아가신 친지는 복을 적게 쌓은 자들이 가게 된다는 ‘福舍(천당)’에서 생활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명계를 돌아보는 주인공의 눈을 통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선업 쌓기와 불교 신봉의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

명계 진입 후 주인공들이 접하게 되는 선악 행위에 대한 엄격한 심판과 명계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목도하게 되는 지옥과 천당의 모습은 주인공의 눈을 통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의 인과응보 관념을 이해하며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77) 『幽明錄』 83條, “太山府君問禮: “卿在世間, 皆何所爲?” 禮曰: “事三萬六千神, 爲人解除祠祀, 或殺牛犢豬羊雞鴨。” 府君曰: “汝佞神殺生, 其罪應上熱熬。” 使吏牽捉熬所。”

78) 『幽明錄』 264條, “東北出, 不知幾里, 見一城, 方數十里, 有萬城上屋, 因見未事佛時亡伯, 伯母, 亡叔, 叔母, 皆著朽械, 衣裳破壞, 身體膿血……云名福舍。諸佛弟子住中, 福多者上生天, 福少者住此舍。遙見大殿, 二十餘梁, 有二男子二婦人從殿上來下, 是得事佛後亡伯, 伯母, 亡叔, 叔母。”

③ 환생

명계여행을 마친 주인공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 하에서 현실세계로 복귀하게 된다. 명계로의 잘못된 호송과 주인공의 무고는 현실세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다.

강아득이 “집에 불탑을 세워놓고 스님들을 공양했습니다.”라고 하자 부군은 “그대의 복덕이 크도다.”라 하며 도록사자에게 “이 사람의 수명이 다했는가?”라고 물었다. 도록사자가 서적 한 권을 들고 땅에 엎드려 살펴보는데 글자가 매우 작았다. “서른다섯 해가 더 남았는데요.”라고 대답하자 부군이 크게 노하였다.⁷⁹⁾

조태가 지옥을 둘러보고 돌아오니 주관이 “지옥이 법도대로 되어 있던가? 그대가 무죄였기 때문에 수관도독 임무를 부탁한 것일세.…… 주관은 도록사자를 불러 “조태가 어떤 연고로 죽었는가?”라 묻고 사자에게 봉함을 열게 하고 나이가 적힌 책을 검사해본 뒤 말했다. “삼십 년의 수명이 더 남았는데 악귀에게 잘못 잡혀왔으니 지금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주겠네.”⁸⁰⁾

강아득과 조태는 모두 악업을 쌓지 않은 무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명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명계 구경을 마친 후에는 현실세계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이들은 또 각각 35년, 30년이라는 수명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계로 잘못 호송되었기 때문에 명계 법률에 따라 현실 복귀의 정당한 이유를 얻게 되었다. 주인공들의 명계로부터 복귀, 즉 환생이 자연스럽게 이행되기 위해 무고와 잘못된 호송이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했던 것이다.

환생한 주인공들의 입을 통해 명계 체험담이 전달되기 때문에 명계여행 이야기는 불교선양을 위한 불교류 지피소설 창작 의도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실로 복귀하는 환생 이야기는 명계를 직접 체험한 이들을 통해 명계의 심판과 지옥과 천당을 간접 경험하게 하여 불경 속 지옥이 실재함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IV. 나오는 글

본고에서는 南朝 劉宋시기 대표적인 불교류 志怪小說인 劉義慶의 『幽明錄』과 『宣驗記』의 내용 분석을 통해 당시 불교문화를 이해해보았다.

79) 『幽明錄』 264條, “得曰: 「家起佛圖塔寺, 供養道人。」府君曰: 「卿大福德。」問都錄使者: 「此人命盡耶?」見持一卷書伏地案之, 其字甚細, 曰: 「餘算三十五年。」府君大怒。”

80) 『幽明錄』 247條, “泰按行畢還, 主者問: 「地獄如法否? 卿無罪, 故相浼爲水官都督, 不爾, 與獄中人無異。」……主者又召都錄使者, 問: 「趙泰何故死來?」使開滕檢年紀之籍云: 「有算三十年, 橫爲惡鬼所取, 今遣還家。」由是大小發意奉佛, 爲祖及弟懸幡蓋誦《法華經》作福也。”

불교는 東晉 이후 번성하면서 부처나 보살, 지옥, 因果應報에 따른 輪廻 등 불교와 관련된 주제가 소설 창작에 영향을 주면서 제재와 내용에 큰 영향을 끼쳤다. 불교류 지괴소설이 남조시대 지괴소설의 중심이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회풍조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먼저 남조시대 대표적인 지괴소설 작가 유의경과 불교문화가 번성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 불교류 지괴소설의 주제와 관련된 불교의 주요사상을 살펴 보았다. 불교류 지괴소설의 이야기는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본고에서도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여 주제를 구분하되, 南朝時期的인 시대적 상황과 불교문화를 고려하여 現世救濟 중심의 觀世音 신앙, 인과응보와 輪廻轉生, 死後世界 관념을 중심으로 불교의 주요사상과 인생관을 살펴보았다.

남조 宋齊梁陳으로 교체되었던 동란 시절, 사람들은 생명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불안정한 현실에서 사후의 인락을 기원하기보다 현세의 고난으로부터 구제받기를 염원하였다. 이로 인해 來世救濟 중심의 淨土신앙보다 현세구제 중심의 관세음 신앙이 먼저 광범위하게 전파되었던 것이다. 동진 이후 대규모의 불경 번역과 많은 불교 포교자들의 노력으로 남조 시기는 불교문화가 번성하였지만, 동란으로 야기된 생명보존에 대한 위협과 불안정한 생활은 당시 사람들에게 내세보다는 현세에서의 구제를 염원하게 하였고, 이들의 염원은 관세음 신앙으로 체현되었다.

불교는 이미 체계화된 이론을 바탕으로 인과응보에 따른 三世의 輪廻轉生 관념을 구축하고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었다. 특히 삼세의 윤회라는 굴레 안에서 자신의 행위는 불교의 도덕준칙과 계율에 입각하여 선악이 결정되고 이에 대해 반드시 자신이 보응해야했으므로 현세에서의 자신의 생각과 행동은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불경에서 비유나 우화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인과응보와 윤회전생의 이치를 설명했듯이 이 시기 불교류 지괴소설에서도 인과응보를 주제로 한 많은 이야기가 창작되었다. 특히 불교의 인과응보 관념은 삼세의 윤회전생과 연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과도 깊은 관계가 있어, 이와 관련된 주제는 남조시대 불교류 소설의 주요 주제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불교의 전래는 생사를 주관하는 하늘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과 사후세계관에 영향을 끼쳤다. 불교에서는 생사를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에 따른 자신의 業에 의한 보응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옥으로 가든 천당으로 가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업에 따른 것이고, 六道輪廻도 스스로의 행위가 자초하는 것이기에 인간이 사후 임하게 되는 초현실적 세상과 이후 사건들이 보다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국문

張元圭, 『中國佛敎史』, 서울, 고려원, 1983.

히라카와 아키라(저), 이호근(역), 『인도불교의 역사』(상), 서울, 민족사, 1994.

劉義慶 撰, 張貞海 譯註, 『幽明錄』, 서울, 살림출판사, 2000.

- 劉義慶(저), 김장환(역), 『宣驗記』, 서울, 지식을 만든 지식, 2013.
 卞貴南, 「六朝 佛教類 志怪小說 研究」, 嶺南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2002.
 변귀남, 「漢譯經典과 佛教類志怪小說의 영향관계 小考」, 『中國語文學』 41, 2003.

2. 중문

- (南朝宋)劉義慶, 鄭晚晴輯注, 『幽明錄』,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88.
 孫昌武, 『佛教與中國文學』, 上海, 人民出版社, 1988.
 王明, 『太平經合校(上)』, 北京, 中華書局, 1997.
 苗壯, 『筆記小說史』, 浙江, 浙江古籍出版社, 1998.
 魯迅, 『魯迅輯錄古籍叢編』,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9.
 屈原 著, 殷義祥·麻守中 注, 『楚辭譯注』, 長春: 吉林出版社, 1998.
 楊伯峻 譯注, 『孟子譯注』, 北京, 中華書局, 2000.
 黃壽祺·張善文 撰, 『周易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魯迅, 『中國小說史略』, 南京, 江蘇文藝出版社, 2007.
 李劍國, 『唐前志怪小說史』,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1.
 薛惠琪 撰, 『六朝佛教志怪小說研究』, 臺北, 文津出版社, 2011.
 (晉)干寶 陶潛 撰, 曹光甫·王根林 校點, 『搜神記 搜神後記』,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2.
 賴永海 主編, 王彬 譯注, 『法華經』, 北京, 中華書局, 2015.
 何清清, 「佛教因果觀與六朝至初唐志怪小說」, 『西南農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5: 2, 2007.

3. 기타

- CBETA電子佛典集成, http://tripitaka.cbeta.org/ko/T52n2110_003.0504b16. 法琳, 『辯正論』 卷三.

- ※ 이 논문은 2018년 5월 25일에 투고되어,
 2018년 6월 15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8년 7월 29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7월 30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Buddhist Culture during Southern Dynasties and Buddhist kind of Zhi-guai Stories - Focused on *YouMingLu* & *XuanYanJi* -

Lee, Inkyung*

This article analyzed the content of Liu YiQing's *YouMingLu* and *XuanYanJi*-typical Buddhism-style Zhi-guai stories during Liu-Song of the Southern Dynasties-and sought to understand Buddhist culture then.

Along with the flourishing of Buddhism since the Eastern Jin, Buddhism-related themes such as Buddha, Bodhisattva, hell and samsara (輪廻, eternal cycle of birth/death/rebirth) as a result of retributive justice, affecting the creation of novels, had a great impact on their materials and contents. The reason Buddhism-style Zhi-guai stories positioned as the heart of Zhi-guai stories during the Southern Dynasties was related with such social trend. So, in the first place, the study reviewed the period's circumstances in which Liu YiQing-typical author of Zhi-guai stories during the Southern Dynasties-and Buddhist culture flourished as well as main thoughts of Buddhism related with Buddhism-style Zhi-guai stories. As for Buddhist culture during the Southern Dynasties, this study, considering the period's circumstances and Buddhist culture then, examined main thoughts of Buddhism and view of life focused on concepts of this-world-saving Avalokitesvara (觀世音) faith, retributive justice & samsara, and afterlife. Linking contents of *YouMingLu* and *XuanYanJi* with main thoughts of Buddhism, this study analyzed by grouping under spiritual stories, stories of retributive justice, stories of the dead and rebirth, and sought to understand Buddhist thoughts and culture as reflected on the two books.

[Key Words] Buddhist culture, Buddhism-style Zhi-guai Stories, Avalokitesvara faith, Retributive justice, Hell

* Non-tenure Track Assistant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